

충청권 기초단체장 직무만족도 박용갑 중구청장·황선봉 예산군수 가장 높아

세종리서치 조사결과... 박정현 대덕구청장 상승, 황인호 동구청장 하락



박용갑 중구청장·황선봉 예산군수

충청권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만족도 조사결과 대전시는 박용갑 중구청장이, 충남도는 황선봉 예산군수가 4개월 연속 가장 높은 긍정평가를 받았다.

시민미디어마당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영호)과 (주)세종리서치(대표 권주환)가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총 청 권 시・도지사 및 교육감과 20개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직무만족도 조사 결과이같이 나타났다.

대전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박용갑 중구청장이 49.0%로 대전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직무

수행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3월(56.0%)과 4월(52.0%) 5월(58.3%)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지만 4개월 연속으로 대전시내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남성(50.8%)이 여성(47.7%)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인 가운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62.7%)에서 가장 높았고 목동·중촌동·유동·유유동·태평 1,2동 등 제2선거구(62.7%)에서의 긍정평가가 높았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이번 달 조사에서 43.8%로 황인호 동구청장을 제치고 처음으로 대전시내 기초자치단체장 만족도 2위로 뛰어올랐다. 지난 5월 조사에서는 42.8%였으나 1%가 증가했다. 황인호 동구청장의 직무만족도는 42.7%로 전월에 비해 1.9%p가 내렸고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3위로 내려앉았다.

충남도내 15개 시·군 기초자

치단체장을 살펴보면 황선봉 예산군수가 78.5%의 만족도로 전월에 비해 3.1%p 상승했으며 4개월째 충남도내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여성(85.0%)이 남성(74.6%)보다 높고 삼교읍·대흥면·용봉면·덕산면·봉산면·고덕면·신암면·오가면 등 2선거구(85.0%)에서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85.2%)에서 가장 높았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76.8%의 만족도로 2개월 연속 충남도내에서 2위를 차지했다. 김동일 보령시장(73.6%)이 3위, 박정현 부여군수가 72.3%로 4위, 김돈곤 청양군수는 69.4%로 5위를 차지했다. 가세로 태안군수(62.1%)도 긍정평가가 높게 나왔다.

김영호 시민미디어마당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에 대해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중부권에서는 처음으로 기

초자치단체장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 조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직무수행 만족도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유선전화 RDD 100% 방식으로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19세 이상 대전시 1,501명, 충청남도 2,997명, 세종시 3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통계분석은 각 변수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5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중을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대전 ±2.53%p, 충남 ±1.79%p, 세종 ±5.65%p이며 응답률은 대전 2.3%, 충남 2.5%, 세종 1.7%이다. 자세한 내용은 (주)세종리서치와 시민미디어마당 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정복기자



김영애 의장,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격려 김영애 아산시의회의장은 지난 10일 청양군민회관에서 열린 제9회 충남도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이·통장들을 격려하고 지역발전의 중심축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의원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문기관 운영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 설치 근거조항 마련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읍)은 10일 한국연구재단 산하 부설기관 설치 법적 근거를 만드는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제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를 제시하고 그 후속조치로 '연구관리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한국연구재단(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3개 기관에서 한국연구재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국의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관

행해 왔다. 그러나 각 부처별 다수의 전문기관이 운영되면서 R&D 투자 효율성 저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를 제시하고 그 후속조치로 '연구관리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한국연구재단(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3개 기관에서 한국연구재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런 타 기관의 경우 소관 법률에 부설기관 설치의 근거를 두고 부설기관을 설치하고 있는 반면, 한국연구재단은 근거법령인 한국연구재단법에 부설기관 설치 근거 조항이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연구재단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게 하여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써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정부의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 전문성·공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김성규기자

청양군의회, 제256회 임시회 개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양군의회의장 구기수는 10일 제256회 임시회를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수도 211개소 일제 수질검사 및 군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도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첨단 자동화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며 청양군 상수도 급수관리 조례 개정 등에 대해 5분 발언을 하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고 등을 청취하고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 추진 방향과 대안을 함께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구기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군민생활과 밀접한 안전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군민들의 불편사항 및 현안에 대한 군정의 올바른 방향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분회의에서는 최의환 의원이 정신정수장 관련해 마을상

회 결의안, 노은초 모의의회 체협 시간 가져

청양=정성범기자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김복만 의원 선출

충남도의회는 지난 제312회 정례회에서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에 김복만 의원(금산2)을 선출한 데 이어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부위원장에 김동일 의원(공주1)을 선임하였다.

예결특위는 충청남도청과 교육청에 대한 예산 심사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도민의 삶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결산 심사를 통하여 계획에 맞게 집행했는지 철저히 심사하고, 재정 운용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복만 위원장(금산2)은 "충청남도청 6조 7천여 원과 도교육청 4조 원 등 약 10조 7천여 원을 심사하는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도민을 대신해 재원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검제하여 집행부가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내년 7월 2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유성구의회, 노은초 모의의회 체협 시간 가져

김정환기자

김인식 의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정책 점검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될 수 있는 정책 점검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서구 3,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유치원방과후과정 전담사의 불합리한 방향 중 근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환

기 계획보고 ▲김기춘 의원의 6인이 발의한 청양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분회의에서는 최의환 의원이 정신정수장 관련해 마을상

과정전담사들이 모두 떠난고 있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또한 대전의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인력 지원 정책은 전국 최초로 운영되어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대전시교육청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점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김인식 의원은 "전국 최초로 타이틀도 좋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정책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앞장선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면서,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그 해택이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실종아동 관련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명수의원, 법적근거 마련 위한 내용



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실종아동의 날'의 법정기념일 지정이다.

한편,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미

국 대통령에 의해 매년 5월 25일 '세계 실종아동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캐나다와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7년부터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종아동의 날'을 기념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지정하고 5월 넷째 주를 실종아

동주간으로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취지에 맞는 행사를 사업화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명수 의원은 "실종아동관련 예방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매년 실종아동을 찾는 부모들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종아동의 날'을 기념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 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시 유성구 노은초등학교 학생들이 10일 유성구의회를 방문해 의회견학과 모의의회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의회방문은 유성구의회가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관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 모의의회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지역구 의원과의 만남, 모의의회 체험교실 실습, 의회시설 견학 순으로 진행되었다.

모의의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의장과 의원, 공무원으로 역할을 분담해 인건상정을 비롯한 질의와 답변 등 실제 의회의 민주적인 의사처리 과정을 체험했다.

김정환기자

세종시의회 '청소년 정책 활성화 연구모임' 간담회

청소년 지원 위한 조례 제정 대의 논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일 오후 2시 의정실에서 제2차 간담회('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손현욱 의원)'은 9

방안과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에는 손현욱·박용희·유철규 의원과 김동호(세종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조주환(세종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강경구(고은청소년문화의집 원장) 등 회원 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연구모임 활동에 대한 세부계획 및 일정을 협의하고, '세종시교육청 청소년정책 현황 및 개선과제'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김태선기자

국회아프리카새시대포럼, 제60회 아침세미나 개최

황창연 신부, 잠비아카사리아에코시티 사업의 성공사례 통해 아프리카 진출 새로운 모델 소개



국회아프리카새시대포럼(회장 이주영 국회의장이) 제60회 아침세미나를 열었다.

10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는 평창 성필립보 생대마을 관광인 황창연(베네딕도) 신부의 '아프리카의 한국생대마을: 잠비아 에코 카사리아 프로젝트'를 주제로 한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 2013년 11월 22일 시작해 이날 60회째를 맞이한 국회아프리카새시대포럼 아침세미나는 그동안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김용 전 세계은행총재 등 아프리카와 관련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각계각층 인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토론을 벌이는 등 국회 연구단체로는 아주 드문 모범적인 사

례로 꼽힌다. 60번째 연사로 초청된 황창연 신부는 신부 서품 후 평택 비전동 성당 주임을 거쳐 현재는 평창 성필립보 생대마을 관광을 맡고 있으며, 경북 문경을 비롯하여 잠비아 카사리아 등 국내외에 다양한 형태의 생대마을을 조성해 앞장서고 있는 분이다. 특히 "농사꾼 신부 유럽에 가다" 등 5권의 수필집을 내기도 했으며, 저서 판매 수익을 모두 생대마을 조성의 기본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날 강연에서 황창연 신부는 "8년 전에 시작한 잠비아 카사리아 에코시티 사업은 잠비아 정부로부터 1,000만평에 달하는 땅을 증여받아 농업과 의료관련 교육 기관, 아동을 위한 시설, 농장, 선교시설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프

로젝트로 잠비아는 물론 주변 많은 나라로부터 대단히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다"고 소개하며, "생대마을을 조성사업이 아프리카 주민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아프리카 진출의 새로운 모델 사례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창연 신부의 기획과 서울시립대 김정빈 교수팀의 도움으로 건설 중인 카사리아 에코시티 사업은 잠비아 [무플리니] 근처의 대규모 토지에 조성되는 생대마을 건설 사업이다.

이날 강연을 주최한 이주영 부의장은 "황창연 신부의 에코시티 사업은 우리나라 기업이나 기관·단체가 어떻게 해야 아프리카 나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본다. 에코시티 사업이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에 제2, 제3의 에코시티 사업이 활발히 전개돼 우리의 이미지 제고에 물론 지구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성규기자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 견본주택 12일 개관 예정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 4-2생활권 마지막 민간참여 공공분양... 전국 청약 가능해 수요자 관심 높을 전망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 한국토지주택공사,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은 오는 12일(금) 세종 행정 중심복합도시 4-2 생활권 L3, M5블록에 공급되는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L3블록은 지하 1층~지상 20층, 6개동, 전용면적 59~67㎡, 318세대이며, M5블록은 지하 1층~지상 29층, 7개동, 전용면적 59~99㎡, 499세대로 총 817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다. 단지 고정수요와 단지 인근 테크밸리(계획) 수요까지 아우를 수 있는 단지 내 상가 8실도 동시분양한다.

■ 4-2생활권 마지막 민간참여 공공분양, 전국 청약 가능해 높은 인기 예상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은 4-2생활권 마지막 민간참여 공공분양이라는 점에서 많은 수요자들의 인기가 예상된다. 지난 5월 24일 진행된 4-2 생활권 3개 구역 컨소시엄 동시분양에는 총 2만 2,035건의 1순위 청약통장이 접수되며 모든 사업장이 1순위 마감된 바 있어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세종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전국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세종시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단,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인 50%가 배정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 경쟁력도 우수하다.

단지 바로 인근에는 초·중학교가 위치해 안심 교육여건을 갖췄고 삼성천과 괴화산에 둘러싸인 자연명당에 위치해 아파트에서 멀리 나가지 않아도 녹지를 누릴 수 있다. 세종시청과의 거리가 약 4km에 불과해 공공기관 접근성이 좋고 BRT간

선급행버스를 통한 세종시 내부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그 밖에 예정돼 있는 외곽순환도로와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를 이용해 대전 및 청주 진출입이 편리하기 때문에 세종시 외로 출퇴근하는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다양한 생활패턴 고려한 맞춤형편, 차별화된 특화시양 ‘눈길’

사용자의 생활패턴을 고려해 세분화된 맞춤형 편이 제공되는 것도 주목해볼 만하다. 우선 4베이 판상형 구조(일부 타입 제외)와 남향 위주 배치로 일조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맞춤형 구조를 통해 채광과 환기에 신경 썼다. 또한 84㎡B에는 안방에 장방향 대형 드레스룸이 설치되고 일반 아파트에 비해 10cm 높은 2.4m 천장고가 적용돼 실내 개방감을 높였으며, 최상층 세대의 경우 천장고가 5cm 더 높다.

침실 1,2에는 불박이장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공용욕실은 취향에 따라 욕조와 샤워부스 중 선택할 수 있다. 부부욕실에는 하부장이 기본으로 제공돼 수납 공간을 극대화했다. 일부 타입(M5블록 84㎡A)에서는 넓은 알파공간 대신 같은 공간을 알파공간과 팬트리로 나눠 활용할 수도 있다.

세대 내에는 끊임 없는 단열설치로 단열성능을 끌어올렸으며, 동절기를 대비해 세탁실에도 바닥난방을 적용했다.

■ 주거 편의성 고려한 혁신 스마트 시스템 곳곳 배치

사용자 주거 편의성을 고려한 스마트 시스템도 눈에 띈다. 외출 설정 후 도어카메라를 통해 영상통화로 방문자 확인이 가능하고, 외부인이

현관 앞 일정시간 배회 시 근접센서 감지 후 도어카메라가 자동으로 영상을 저장하고, 월패드 및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CCTV는 지하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보관소, 쓰레기수거함 등 사각지대 안전을 고려해 설치될 예정이다.

비상벨도 지하주차장, 어린이 놀이터에 각각 설치될 예정이며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한 맘스스테이션과 연계된 드롭오프존 등 여성과 어린이를 배려한 안전한 단지로 구축된다. 그 외에 주차관리 시스템, 방문차량 사전예약 시스템, Rush Pull 방식 스마트 도어록 등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했다.

거실에는 통합형 월패드, 안방과 각 침실에는 스마트 스위치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대기전력 차단제어, 조명제어, 난방제어와 스마트폰을 통한 외부 원격제어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 일괄소등 스위치, 전 세대 100% LED조명,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주방), 색 온도와 밝기 조절이 가능한 디밍 조명시스템이 거실 및 안방에 적용돼 에너지 절약 및 생활의 편리함을 높였다.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통합 원패스카드는 지하주차장부터 세대현관까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카드는 주차위치 인식 및 확인, 공동현관 자동분열림, 승강기 자동호출, 목적층 자동 인식 기능을 갖추고 있고 카드의 비상버튼을 이용해 방재실로 위험상황을 통보해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도 있다. 또한 홈 Io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홈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모바일 원격제어 및 음성인식스피커를 통한 음성인식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주차장은 100% 지하주차장으로 설치(상가 제

외폐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조성된다. 지하주차장 천장고는 유효높이 2.7m를 확보해 택배차량, 응급차량 등의 지하접근을 높였다. 또한 주차가 능공간을 알려주는 스마트파킹 시스템으로 신속한 주차가 가능하며, 2대 모듈 주차장 적용으로 분복 없는 주차장 설치가 이뤄진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도 도입하여 전 세대에 적용했다.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은 각 세대에 미세먼지 등의 공기질을 알려주는 스마트 환기센서와 초미세먼지까지 잡아주는 H13등급의 HEPA필터가 내장된 전열교환기를 통해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다.

■ 입주민 삶의 질 높여줄 이웃도어 그라운드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 ‘주목’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에는 ‘OUTDOOR: Life’ 조정 콘셉트가 적용된다. 아파트 내부를 제외한 모든 야외공간에서 운동, 놀이, 휴식, 여가 활동이 연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집의 개념을 확장한 설계 개념으로, 단지내 중심공간에는 모든 입주민들이 모여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 공간 ‘OUTDOOR GROUND’를 조성한다. 외부공간에서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산림청 권장 미세먼지 저감수종을 식재하고, 안심놀이터를 위한 미세먼지 신호등 안내판, 다양한 인지활동이 가능한 테마놀이터가 설치된다. L3블록에는 어린이집,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조형조형 쉼터 등이 결합된 통합형 놀이공간 ‘KIDS GROUND’가 조성되며, M5블록에는 총 3개의 놀이터(어린이놀이터2개소, 유아놀이터1개소)가 3책 3재미를 가진 테마로 조성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 GX룸,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작은도서관과 전용 전망형 엘리베이터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휴게공간인 스카이라운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 밖에 전기차 충전 스테이션, 자전거주차장, 무인택배 시스템 등이 적용돼 생활의 편리함을 높여줄 전망이다.

아파트와 동시에 분양하는 단지 내 상가 8실도 관심을 모은다. 4-2 생활권의 중심상업지와 이격된 단독 상권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817세대의 단지 고정수요로 호실당 높은 세대 비율 확보가 가능하다. 또 단지 바로 옆 테크밸리(계획) 배후수요를 흡수할 수 있고, 민간참여 공공분양으로 투자 안전성이 높다. 고객들의 동선을 고려해 전 호실 1층 주출입구 위치로 상가 이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인 점도 장점이다.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 분양관계자는 “4-2생활권 마지막 민간참여 공공분양이라는 장점과 우수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세종 내 수요 외에 대전과 청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많다”며 “입주뿐만 아니라 단지 내 특화설계와 혁신 시스템이 집약돼 있는 만큼 좋은 청약성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은 7월 16일(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수) 1순위, 18일(목)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5일(목) 예정이며, 계약은 8월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실시한다. 견본주택은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3-3번지에 위치한다.

<문의전화> : 1800-0919

● 특 정 ●

천사의 손길 기탁식 개최



황인호 동구청장은 11일 오전 10시 30분 구청장 접견실에서 동구 용운동 소재 가톨릭 교회의 천사의 손길 기탁식을 개최.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방문



박용갑 동구청장은 11일 오후 4시 '무수동 치유의 숲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 방문.

미트갤러리 후원금 기탁식행사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11일 오전 10시 구청 행복사랑방에서 열리는 미트갤러리 후원금 기탁식행사에 참석.

제8회 인구의 날 기념식



임진찬 서구부구청장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8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 참석.



동구 구민청안 아이디어 공모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구민청안 아이디어를 내달 30일까지 집중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구정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국민신문고, 구 홈페이지, 우편 혹은 방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모내용은 구정 전반에 관해 주민이 생활하면서 느껴온 필요·개선사항으로, 단순회법령의 제정·폐지를 요구하거나 주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은 채택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청안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계속성을 기준으로 부서별 사전검토를 거쳐 9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시상은 ▲금상(1명/50만원) ▲은상(1명/30만원) ▲장려상(2명/10만원) ▲노력상(15명 이내/2만원) 총 4개 등급으로 이뤄진다.

최종 선정된 제안은 향후계획 및 추진상황을 제안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채택제안이 행정에서 반영되어 성과로 나타나는 경우 제안자를 위한 위원회에 위촉 추천하는 등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정에 반영하겠다"며 "주민의 입장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제2도수관로 부설... 안정적 용수공급 기대

비상사고 발생 시 신속대처 및 중단 없는 용수공급



제2도수관로는 중리취수장에서 월평정수장까지 1990년대에 준공된 기존 도수관로의 비상사고 발생 시 월평정수장 용수공급 중단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대처와 시민들에게 안정적 용수공급 체계를 위해 도수관로 이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존 도수관로의 점검 및 사고 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평상시에는 배수관로로 전용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된다.

제2도수관로는 780억 원의 사업비로 중리취수장에 월평정수장까지 11.4km 구간에 강관 D=1900mm로 추진 중이며, 2022년 1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대전시 정무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제2도수관로 부설이 준공되면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것"이라며 "공사로 인한 차량통제에 의한 통행 불편이 없도록 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탄진 도시재생대학 2기 수료식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주관하고 신탄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주최한 '2019 신탄진 도시재생대학 2기'가 총5주(6회)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10일 신탄진 동행복지센터에서 수료식을 가졌다.

다양한 계층의 도시재생활업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히 이번 2기 과정은 교육환경 개선에 관심이 많은 지역 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녀들과 함께 선진지 답사를 다녀오는 등 청소년들도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공동의 노력의 과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더욱이 이번 도시재생대학은 도시재생과 주민참여 유형, 주민공모사업의 사례에 대한 이론 강의와 팀별 워크숍을 병행함으로써 신탄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사업을 주도해보는 주민공모사업 참여 동기부여에 역점을 뒀다.

신탄진 도시재생활업지원센터(센터장 이재우는)는 지속적인 도시재생대학 운영으로 주민 공감대 형성과 역량강화에 힘써 도시재생활업성과 활발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재우 센터장(목원대 교수)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찾고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공모사업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과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신탄진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의 아이디어 제안, 사업기획, 사업추진에 소규모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도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보다 다양한 계층이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대덕구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용운도서관 독후감심문 공모전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대전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제22회 독후감심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는 용운도서관에서 주관해 현재 접수 중으로 9월 6일 마감예정이며 대전시 초·중·고등학생은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지정된 도서는 따로 없으며 산문, 수필, 편지글 등 형식 제한 없이 초등학생은 200자 원고지 5매(A4용지 1매) 내외, 중·고등학생은 200자 원고지 10매(A4용지 2매) 내외의 분량으로 방문, 우편, 혹은 이메일로도 접수(hoje2@korea.kr) 할 수 있다.

시상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부문으로 나누어 수상자 18명(시교육감상 3명, 동구청장상 9명, 동부교육장상 6명)을 선정해 9월 20일 용운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열리는 책문화어울마당 행사에서 시상식을 열 계획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전시 초·중·고등학생이 책을 읽고 생각의 깊이를 더하여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에너지 취약계층에 선풍기 전달

대전 유성구 진잠동(동장 강두식)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안수가) 무더위에 취약한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선풍기 4대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진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 프로그램을 통해 교부받은 사업비로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6월부터 돌봄가구의 필요 용품을 미리 파악하고, 선풍기가 필요한 40가구를 선정, 오는 12일까지 각 가정에 전달하며 안부를 살필 예정이다.

정안수 위원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며 "폭염이웃에게 선풍기 4대를 전달한 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두식 동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선풍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동에서도 주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박광관 기자



대전예당 하반기 무대점검

오는 15일부터 8월2일까지

대전예당의전당(이하 대전예당)은 오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무대점검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대전예당은 매년 여름과 겨울, 비수기 기간에 두 차례에 걸쳐 보름-20여일 정도 무대점검 기간을 갖고 있으며 기간동안 무대의 모든 장치와 시설, 그리고 부속시설의 장비까지 점검에 들어간다.

올해는 특히 음향과 조명에 노후된 설비를 새로 교체하는데, 음향의 경우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오디오 콘솔을 디지털 오디오 콘솔로 교체, 업그레이드한다. 디지털 오디오 콘솔의 가장 큰 장점은 매 공연에 사용된 음향디자인을 저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후 비슷한 혹은 똑같은 공연이 재공연 될 경우 음향 셋업에 들어가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인이어(In-ear)모니터와 무선인터컴 등 커뮤니케이션 장비도 업그레이드

한다.

조명의 경우 음향반사판에 달려있는 플리멘트 직관 램프를 모두 LED등으로 교체한다. 전력소비가 획기적으로 줄게 되며 열 발생도 현저히 떨어지고 등의 수명도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1석 3조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 또한 각각의 등을 개별 컨트롤할 수 있어 무대 위 연주자들의 연주환경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출할 수 있게 된다.

이외 무대기계파트는 전기점검과 부품 교체 및 시스템 오류 점검을 해 기계작동이 공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무대진행팀은 점검기간동안 무대막을 전면 교체한다. 객석에서 바라볼 때 무대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무대막은 이번이 개관이래 첫 교체가 된다. 군데군데 구멍이 날만큼 낡기도 했고 방염처리도 유효기간이 지나 이번 무대 점검기간 동안 새로운 무대막으로 교체한다.

송병배 기자



2019년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방학프로그램 지원사업

대전공동모금회 아동복지시설 1억 8천여만원 전달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안기호)는 10월 '2019년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방학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전지역 아동복지시설 37개소에 1억 8천여만원을 전달했다.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대전소재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아동·청소년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프로그램과 체험 학습 지원으로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신학기 필요 물품 지원을 통해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자 2019년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방학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라인 배분신청을 받아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상기관을 선정했다.

송병배 기자

7월 정기분 재산세 185억원 부과

중구, 오는 31일까지 ATM기와 인터넷 통해 납부가능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02,536건 185억 6천8백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주택,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기준일 이전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이전한 경우에는 매수

인이 해당연도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분 50%(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ATM)와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

(http://wetax.go.kr), 지방세 ARS(720-9000)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세무과(606-6330-6337), 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이달까지 꼭 재산세를 납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선 기자

서구 '10대 서구미래 발전과제' 제시

대내·외 여건과 정책 패러다임 변화 부응새 발전모멘텀 확보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올해로 서구의 새로운 30년이 시작되는 첫해를 맞아, 미래 서구의 성장 동력이 될 '10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대내·외 여건과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한 새로운 발전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과제를 발굴하게 되었으며,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10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10대 전략과제는 제2차 서구 균형 발전 계획에 포함하여

장기과제로 추진하게 된다.

대전 서구 미래를 이끌 10대 전략과제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자치분권 도시 ▲자연과 산업이 공존하는 평촌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더 안전한 안심 서구 만들기 ▲대전 서구힐링 아토피스토퍼 대한민국 대표축제 육성 ▲만년동 일일 사이언스-문화예술벨트 구축 ▲아동·여성·어른까지 함께 행복한 복지 도시 조성 ▲주민 스스로 만드는 우리동네 재생 프로젝트 ▲문산센터파크 조성

과 연계한 녹색복지도시 구현 ▲장태산·노루밭 일원 전국적 생태관광 명소화 ▲온마을이 배운터다' 교육 으뜸 도시 서구 구현이다.

구 관계자는 "선정된 전략과제는 대형지역개발사업뿐 아니라 문화, 교육, 주거, 안전까지 아우르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중심 서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 10대 전략과제를 주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실행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관 기자

대전형 좋은 일터 조성 사업 '순항 중'

8개핵심 과제 추진 관련 15개 참여기업 중간점검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년 대전형 노사상생모델 '좋은 일터' 조성사업의 중간점검 보고회가 열렸다.

지난 9일 오후 일지리경제국회의실에서 열린 중간점검 보고회에는 시 담당부서와 진흥원 추진단이 참여해 올해 사업 추진과정과 6월말까지의 15개 참여기업 추진실적 보고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참여기업이 6월 말 기준으로 8대 핵심과제를 추진한 실적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제 도입, 신규인력 채용 등의 노력 ▲원·하청관계 개선을 위해 원·하청 간 감담회 실시, 상생기금, 이익공유제 도입 검토 ▲비정규직 보호로 근로조건 개선, 정규직 전환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밖에 ▲일·가정 양립분화조성에 33건 ▲노사관계 개선 47건 ▲안전시설 및 작업장 환경개선 38건 ▲인적자원 관리 선진화 28건 ▲문화여가활동지원 27건 등 총 226건 중 54건이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선 기자

아산시 드론 긴급방제단 출동

돌발해충 신속 제거... 70여농가 벼 재배농가들로부터 큰 호응 얻어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우)가 돌발병해충 드론 긴급방제단을 본격 가동했다.

시는 방제 드론 7대, 광역방제기 1대로 구성된 드론 긴급방제단을 띄워 지난 달 29일부터 먹노린재 다발생 지역인 엄치읍, 도고면 등을 중심으로 70여농가, 289필지, 73ha 긴급 방제해 벼 재배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멸강나방 주비래(飛來)지역인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신문리 제방 길대숲 주변에 멸강나방 유충이 다량 확인돼 광역방제기 1대를 투입해 제방 4.2km 구간을 긴급 방제했다.

시는 돌발병해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 3월 아산시 돌발병해충 드론 긴급방제단을 구성했으며, 주요 발생의심지역의 돌발



병해충 발생상황을 사전에 예측해 초기 확산을 방지하는데 노력해 오고 있다.

돌발병해충은 발견 즉시 농업기술과 식량작물팀(041-537-3823)으로 연락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센터 병해충 담당자는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농가단위에서 돌발병해충의 예방과 초기 방제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에 구성된 드론 긴급방제단을 활용해 초기 확산을 막고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먹노린재는 고온성 해충으로 시는 벼 친환경 필지 및 전년도 다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먹노린재 발생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상고온 등으로 인해 최근 2~3년 사이 발생빈도 및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다.

이산=리량주기자

양파 말레이시아와 대만 첫 수출 성공

당진지역 양파 판매 부진 해소 기대

최근 판매 부진으로 양파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당진에서 생산된 양파가 해외 시장을 개척해 눈길을 끌고 있다.

당진 해나루 농협농조합법인(대표 박성준)과 ㈜씨드온, 농협회사법인 준평(주)는 10일 오후 3시 출고식을 갖고 선별작업을 마친 수출 초도 물량 72톤을 대형 컨테이너 차량에 실어 부산항으로 보냈다. 이번 초도 물량에 향후 물량까지 합하면 총 수출물량은 2000톤 규모다.

이번에 수출되는 당진 양파는 당진 해나루 농협농조합법인이 국내 종자생산 업체인 ㈜씨드온과 계약을 맺고 재배한 것으로, ㈜씨드온은 지난해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APC)의 수매 가격과 비슷한 kg당 500원을 최저 가격으로 보장했다.

특히 양 기업은 공급과잉상태인 국내

양파 시장을 감안해 해외시장으로 생산물량을 대폭 해외시장으로 수출하기로 결정하고 다방면으로 노력한 끝에 준평(주)와 손잡고 이번 말레이시아와 대만 수출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 해나루 농협농조합법인은 지난 해부터 지역의 40여 농가를 중심으로 66ha에 양파를 재배 중이며 향후 330ha까지 재배 면적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법인 관계자는 "올해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등지로 양파가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양파재배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올해 양파 가격 폭락에 대응해 공작자 양파 사주기 운동과 최저생산비 지원 등 소비촉진과 농가 소득보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전기차 급속 충전기 24시간 개방 운영

조폐공사, 본사·ID본부 각각 1기 설치... 친환경 자동차 저변 확대 기대

한국조폐공사는 대전 본사와 ID본부에 각각 개방형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1기를 설치,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요금은 사용자가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조폐공사는 지난해 대전시와 협약을 맺고 국민에게 24시간 개방 운영되는 전기차 급속 충전기 설치를 준비해왔다.

조폐공사 채종천 기술처장은 "이번 개방형 급속 충전기 설치가 친환경 자동차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될 것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경보전 및 에너지 절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롯데백화점 대전점, 홈스타일링 '생활가전' 만나보세요

롯데백화점 대전점(점장 손율경) 지하1층 디자인 가전 전문 브랜드 '코스텔' 매장에서 직원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해 생활가전을 선보이고 있다. 나만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 홈스타일링이 가능한 모던 레트로 냉장고부터 그릴, 오븐, 찜 요리가 가능한 미니오븐, 다용도 물걸레 청소기 등 감성적인 디자인과 컬러를 조합한 다양한 아이템을 제안한다.

태안=김정환기자

올해 대전·세종·충청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산재예방 유공자 포상 및 안전보건기술세미나 열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는 11일 오후 1시 30분 DCC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각급 기관장 및 안전보건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대전·세종·충청 지역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및 안전보건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는 지역 노·사·정 대표,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자, 유관기관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산업재해예방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이 실시된다.

기념식 이후 3시부터는 산재 사고사망 절반 줄이기에 초점을 맞춰 ▲ 산업안전 ▲ 직업건강 ▲ 건설안전 등 3개 분야에 대해 안전보건기술 세미나가 개최된다.

박상우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장은 "산재 사망사고의 약 60%를 차지하는 건설업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

해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사업주도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96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제 52회를 맞이하는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은 '함께 지킬 안전, 모두가 누릴 권리'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서울 코엑스를 시작으로 대전·대구·광주·부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송병배기자

태안군 고품질 한우생산 '수정란 이식사업' 실시



태안군이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수정란 이식사업에 적극 나섰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우량 암소를 활용

위해 생체난자흡입술을 이용한 수정란 이식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생체난자흡입술'은 유전능력과 번식 능력이 우수한 '공란우'에서 난자를 채

취해 우수한 씨수소의 정액을 이용해 수정란을 생산, '수란우'에게 이식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군은 23%에 불과했던 평균 수태율을 43%까지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군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수정사, 전문 수정란 생산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3세대 이상의 혈통이 등록된 우수한 암소를 선정해 수정란을 생산하고 당일 이식함으로써 수태율을 향상시켜 한우개량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명현식 태안군한우연구회 회장은 "수정란 이식으로 태어난 암송이지를 활용해 고급육 생산 및 한우 개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태안 청정한우의 체계적인 개량사업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해 안정적인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배재학당역사박물관, 11월까지 매주 인문학산책

‘정동, 깊이 보기’ 인문학 강연



나선화 전 문화재청장, 이대진 전 국사편찬위원회장 등 석학 12명이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11월까지 매주 인문학 산책 ‘정동, 깊이 보기’ 강연을 개최한다.

‘정동, 깊이 보기’ 인문학 산책은 조선시대 ‘근대화 1번지’로 꼽히는 서울 정동의 속살을 들여다 보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역사·문화·종교·교육·건축 등 정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에피소드 형식으로 풀어낸다.

공주시, 노후관로 우선교체 5개년 계획 수립

노후 상수도관 문제 해결 발 벗고 나서

공주시(시장 김경섭)가 상수도관에 대한 전수 조사와 관로 전문 기술진단을 통해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황도연 상수도과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 시행과 진단 결과에 따른 노후 상수도관 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노후 상수도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에 자리잡아 많은 시민이 근대화의 숨결을 느끼도록 했다.

첫 강연자로 나선 나선화 전 문화재청장은 ‘정동 문화유산의 가치’를 주제로 곳곳에 포진한 석조전, 대한문, 덕수궁 돌담길, 옛 러시아 공사관 등 근대 문화유산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오는 20일엔 이대진 전 국사편찬위원회장·서울대 명예교수는 ‘도심에 세운 대한제국 경운궁(덕수궁)-도시사적 의미’를 말한다. 조선시대 정동 목조 건축과 서양식 건축 양식이 있는 유일한 궁궐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

이밖에 김낙환 아펜젤러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이 ‘아펜젤러와 감리교회(9월21일)’를, 문화재 위원 최희희 배재대 교수의 ‘정동: 흔적, 장소, 경관(11월2일)’으로 대대원의 막을 내린다.

인문학 산책을 주최하는 최희희 배재학당역사박물관 관장은 “‘정동, 깊이 보기’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역사의 물결을 되짚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인문학 산책이 열리는 배재학당역사박물관은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고등교육기관 ‘배재학당’을 세운 곳이어서 특별함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없앤다

최근 3년간 사고이력 있는 곳은 3개월 이내, 나머지도 2020년 까지 폐지

청양군, 빅데이터 분석해

CCTV 설치장소 선정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2년 이내에 모두 없앨 계획이라 밝혔다.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신설되면서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이행되지 않는 곳이 많은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4,354면)에 대해 2년 이내로 예의 없이 모두 폐지하거나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해당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여 규정에 위배되는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4,354면)에 대해 전체 폐지계획을 제출했다.

행안부는 주차난에 따른 민원발생 등 현실적인 여건과 개선 시급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일부 지자체에서 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40개소(841면)에 대해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3개월 내(10월말까지) 폐지토록 한다.

나머지 211개소(3,149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59개소(845면), 2020년 말까지 152개소(2,304면)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제출된 계획에 따라 불법 노상주차장이 모두 폐기될 때까지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주차 환경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고, 불법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구간에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 지원을 우선 검토하는 등 보행안전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허연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생활 불편을 이유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적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다.”면서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들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어린이 안전을 위해 3개월 내(10월말까지) 폐지토록 한다.

나머지 211개소(3,149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59개소(845면), 2020년 말까지 152개소(2,304면)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제출된 계획에 따라 불법 노상주차장이 모두 폐기될 때까지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주차 환경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고, 불법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구간에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 지원을 우선 검토하는 등 보행안전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허연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생활 불편을 이유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적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다.”면서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들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대전시, 제4회 Safe대전 안전체험한마당 착수보고회

10월 4일~6일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열려

대전시는 10월 오후 2시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안전체험한마당 추진위원회, 안전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4회 Safe대전 안전체험한마당’ 행사운영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제4회 Safe대전 안전체험한마당’ 행사는 안전을 몸으로 직접 느끼고 배우는 현장형 체험교육으로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엑스포시민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안전체험한마당은 ‘함께해요! 안전대전!’을 주제로 축하마당, 체험마당, 전시마당, 4차산업 체험마당, 경연마당, 홍보마당, 어울림마당 등 6가지 주요 테마로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도전골든벨, 런닝맨,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체험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대회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추가될 예정이다. 김태선기자

‘2020년 복권기금 녹색자금사업’ 내달 9일까지 공모

총 사업비 209억원, 대전시 사업설명회 11일 개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운영권, 이하 진흥원)은 장애인과 노인 등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나눔숲과 무장애나눔길 등을 지원하는 복권기금 녹색자금사업의 내달 9일까지 공모를 내달 9일까지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 국경과제(42)인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 보장’을 위해 복권기금 녹색자금을 활용, 사회복지시설에 녹지 조성, 사회·경제적 배려계층의 숲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나눔숲 조성사업(나눔숲, 무장애나눔길, 실내환경개선사업)은 내달 9일까지, 숲체험·교육 지원사업(75억 원) 등이며, 사업비(7개 세부사업)는 총 209억 2000만 원이다. 특히 내년도 ‘숲체험·교육 지원사업’은 수혜계층 확대 등 교육적 가치 증진을 위해 일반소의 계층지향적 사회적 가치 증진, 산촌 특화·지역상생과 나눔숲 돌봄으로 사업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 홈페이지, www.fowion.kr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녹색자금관리팀(나눔숲 조성사업, 042-719-4081~3)이나 녹색자금사업팀(숲체험·교육 지원사업, 042-719-407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병기기자

체험마당, 전시마당, 4차산업 체험마당, 경연마당, 홍보마당, 어울림마당 등 6가지 주요 테마로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도전골든벨, 런닝맨,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체험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대회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추가될 예정이다. 김태선기자

올해 안전체험한마당은 ‘함께해요! 안전대전!’을 주제로 축하마당, 체험마당, 전시마당, 4차산업 체험마당, 경연마당, 홍보마당, 어울림마당 등 6가지 주요 테마로 개최된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운영권, 이하 진흥원)은 장애인과 노인 등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나눔숲과 무장애나눔길 등을 지원하는 복권기금 녹색자금사업의 내달 9일까지 공모를 내달 9일까지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 국경과제(42)인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 보장’을 위해 복권기금 녹색자금을 활용, 사회복지시설에 녹지 조성, 사회·경제적 배려계층의 숲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나눔숲 조성사업(나눔숲, 무장애나눔길, 실내환경개선사업)은 내달 9일까지, 숲체험·교육 지원사업(75억 원) 등이며, 사업비(7개 세부사업)는 총 209억 2000만 원이다. 특히 내년도 ‘숲체험·교육 지원사업’은 수혜계층 확대 등 교육적 가치 증진을 위해 일반소의 계층지향적 사회적 가치 증진, 산촌 특화·지역상생과 나눔숲 돌봄으로 사업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 홈페이지, www.fowion.kr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녹색자금관리팀(나눔숲 조성사업, 042-719-4081~3)이나 녹색자금사업팀(숲체험·교육 지원사업, 042-719-407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병기기자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운영권, 이하 진흥원)은 장애인과 노인 등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나눔숲과 무장애나눔길 등을 지원하는 복권기금 녹색자금사업의 내달 9일까지 공모를 내달 9일까지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 국경과제(42)인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 보장’을 위해 복권기금 녹색자금을 활용, 사회복지시설에 녹지 조성, 사회·경제적 배려계층의 숲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나눔숲 조성사업(나눔숲, 무장애나눔길, 실내환경개선사업)은 내달 9일까지, 숲체험·교육 지원사업(75억 원) 등이며, 사업비(7개 세부사업)는 총 209억 2000만 원이다. 특히 내년도 ‘숲체험·교육 지원사업’은 수혜계층 확대 등 교육적 가치 증진을 위해 일반소의 계층지향적 사회적 가치 증진, 산촌 특화·지역상생과 나눔숲 돌봄으로 사업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 홈페이지, www.fowion.kr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녹색자금관리팀(나눔숲 조성사업, 042-719-4081~3)이나 녹색자금사업팀(숲체험·교육 지원사업, 042-719-407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병기기자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운영권, 이하 진흥원)은 장애인과 노인 등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나눔숲과 무장애나눔길 등을 지원하는 복권기금 녹색자금사업의 내달 9일까지 공모를 내달 9일까지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 국경과제(42)인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 보장’을 위해 복권기금 녹색자금을 활용, 사회복지시설에 녹지 조성, 사회·경제적 배려계층의 숲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나눔숲 조성사업(나눔숲, 무장애나눔길, 실내환경개선사업)은 내달 9일까지, 숲체험·교육 지원사업(75억 원) 등이며, 사업비(7개 세부사업)는 총 209억 2000만 원이다. 특히 내년도 ‘숲체험·교육 지원사업’은 수혜계층 확대 등 교육적 가치 증진을 위해 일반소의 계층지향적 사회적 가치 증진, 산촌 특화·지역상생과 나눔숲 돌봄으로 사업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 홈페이지, www.fowion.kr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녹색자금관리팀(나눔숲 조성사업, 042-719-4081~3)이나 녹색자금사업팀(숲체험·교육 지원사업, 042-719-407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병기기자

‘청소년 선도 캠페인’ 실시

온양4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의 우리의 희망”



아산시 온양4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지난 9일 신광초등학교 정문에서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들은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인문향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으며, 신광초등학교 정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청소년 지도 및 선도 활동을 펼쳤다.

차민철 위원장은 “올해에도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하고, 건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선도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홍영준 동장은 “항상 올바른 청소년 지도를 위해 노력을 해주시는 청소년지도위원분들과 신광초등학교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홍성군 죽도 ‘핵인싸’ 여행지로 각광

‘여름에 씹타고 싶은 섬’ 중 하나 선정... 대나무숲 탐방로, 조망대 포토존, 해상 낚시



충남 홍성군의 관내 유일한 유인도 섬 ‘죽도’가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한 ‘여름에 씹타고 싶은 섬’ 중 하나로 선정되며 전국 여행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홍성군 서부면에 위치한 죽도는 1개의 유인도와 11개의 무인도로 구성된 섬이다. 이름처럼 대나무가 울창하며 신기한 바위와 야생화 등이 숨은 매력을 아낌없이 선사하는 힐링을 갈망하는 현대인들에게 일품인 섬이다.

특히 죽도는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섬으로 전국에 알려져 있지만 작년부터 시작된 도서 취향과 함께 숨은 섬 관광지로 정평이 나 있다.

◆모세의 기적이 연출되는 섬 11개의 무인도 중 큰담섬, 작은담섬, 총대섬 3개 섬은 썰물 때에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총대섬은 썰물 때 모세의 기적처럼 진입로가 나타나는 장관이 연출된다.

◆힐링이 대세... 생태관광지로 관광객 유혹 죽도 본섬과 큰담섬 사이 물이 빠지면 ‘옹이 올라가다 떨어지곤’이라는 뜻의 용난봉이라 불리는 20미터 정도의 물웅덩이가 생긴다. 이곳에서는 옛 어로방식인 독삼체험을 경험해 볼 수 있다. 또한 죽도의 명물 대나무 숲 절경이 가득한 1.270m의 대나무 숲 탐방로도 조성되어 있다. 천천히 거닐 경우 약 2시간 정도 소요된다.

◆3개의 조망대, 각기 다른 경관 자랑 제1조망대 한운은 선사 조망대는 죽도 본섬 근처의 무인도를 조망하기에 좋다. 제2조망대 최영장은 조망대는 마을과 섬이 한눈에 보이고 제3조망대 김좌진 장군 조망대는 넓은 바다와 대나무 숲을 감상하기에 제격이다. 각 조망대에는 포토존도 설치되어 있어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을 가득 담을 수 있다.

그 밖에 죽도에서는 해양테러 활동인 바지락 캐기, 주꾸미 낚시, 해상 낚시 등을 즐길 수 있으며 먹거리로는 바지락 갈국수, 대하냉채 등이 유명하다. 죽도 내에는 야영장, 캠핑장, 워터파크 구비되어 있어 가족 단위 휴가객들에게도 핫스팟이다.

한편 군은 죽도 아름다운 힐링 섬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방파제 및 등대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죽도 공공화장실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군은 섬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먹거리 발굴 및 팬투어 등 체험 코스 개발 사업에도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여름철을 맞아 죽도 탐방은 또 다른 추억을 선사 할 것”이라며 “주변에 속동전망대, 남당항, 승마체험장, 조류탐사과학관, 천수만 해상 낚시 공원 등 관광 인프라도 다양해 서부해안권 대표 관광지로 손색이 없으니 전국의 많은 여행객 여러분이 찾아와 흥성을 즐기고 가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 6월부터 학부모회 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회와 함께 하는 놀이길 그리기와 전래놀이 연수를 희망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50곳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놀이길은 학생들의 놀이 공간 바닥에 그린 다양한 형태의 전통 전래놀이 밭그림이다.

현재 학부모회는 소라놀이, 망썰기, 달팽이 놀이, 이랑타기, 안경놀이, 고누, 망치기, 8자놀이 등을 학교공간에 그리고 있다. 이와 함께 교사·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전래놀이 연수도 진행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은 향후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지역교육 혁신 문화 확산을 위해 ‘동네방네 마을 속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동네 한바퀴’ 프로젝트를 학부모회의 자발적,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 6월부터 학부모회 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회와 함께 하는 놀이길 그리기와 전래놀이 연수를 희망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50곳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놀이길은 학생들의 놀이 공간 바닥에 그린 다양한 형태의 전통 전래놀이 밭그림이다.

현재 학부모회는 소라놀이, 망썰기, 달팽이 놀이, 이랑타기, 안경놀이, 고누, 망치기, 8자놀이 등을 학교공간에 그리고 있다. 이와 함께 교사·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전래놀이 연수도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시장배 e-스포츠 한발대전

대전지역 e-스포츠 최강자 국립한밭대에서 가려진다

국립한밭대학교(총장 최병욱)는 ‘2019 대전시장배 e-스포츠 한발대전’이 오는 13일 국립한밭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게임을 통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여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및 e-스포츠 중심도시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대전지역 본선으로 단체인 리그 오브 레전드(1팀/5명), 배틀그라운드(1팀/4명), 배틀그라운드(1팀/4명) 및 개인전 ‘카트라이더’, ‘롤 오디션’ 총 4개 종목으로 진행되며, 단체인 1위(2팀/9명)와 개인전 1·2위(4명)에게는 대전광역시상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대회를 통해 선발된

한밭대 최병욱 총장은 “게임이벤트 경기 및 팬사인회, e-스포츠 종목 체험보드·모바일·PC 게임, 게임 B 오픈버스 및 코스프레, AR/VR 체험존 등이 운영된다. 한발대 최병욱 총장은 “게임이벤트 경기와 같은 ‘2019 대전시장배 e-스포츠 한발대전’이 우리대학에서 개최되어 기쁘다. 대전지역 유일의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서 대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회와 놀이길 그리기 ‘큰 호응’

충남교육청, 학부모회 교육참여 활성화 사업 50개교서 실시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 6월부터 학부모회 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회와 함께 하는 놀이길 그리기와 전래놀이 연수를 희망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50곳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놀이길은 학생들의 놀이 공간 바닥에 그린 다양한 형태의 전통 전래놀이 밭그림이다.

현재 학부모회는 소라놀이, 망썰기, 달팽이 놀이, 이랑타기, 안경놀이, 고누, 망치기, 8자놀이 등을 학교공간에 그리고 있다. 이와 함께 교사·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전래놀이 연수도 진행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은 향후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지역교육 혁신 문화 확산을 위해 ‘동네방네 마을 속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동네 한바퀴’ 프로젝트를 학부모회의 자발적,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 6월부터 학부모회 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회와 함께 하는 놀이길 그리기와 전래놀이 연수를 희망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50곳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놀이길은 학생들의 놀이 공간 바닥에 그린 다양한 형태의 전통 전래놀이 밭그림이다.

현재 학부모회는 소라놀이, 망썰기, 달팽이 놀이, 이랑타기, 안경놀이, 고누, 망치기, 8자놀이 등을 학교공간에 그리고 있다. 이와 함께 교사·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전래놀이 연수도 진행될 예정이다.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행정안전부 빅데이터 플랫폼 ‘해안’을 활용, 범죄에 취약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우선 설치지역 86곳을 선정했다.

이번 분석은 CCTV 설치현황, CCTV 설치요청 민원, 상가업소 정보, 주거정보, 범죄취약인구에 대한 정보 등 다양한 내부 데이터와 외부기관 공공데이터를 활용했다.

또 스마트 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도 함께 추진했다.

공공와이파이 분석에서는 현재 설치현황, 문화재, 관광지, 주요 공공시설, 휴게음식점 등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설치지역 40곳을 도출했다.

청양=정성범기자

대전충남중기청, 10일 이노비즈 인증업체 수여식과 간담회 (중) 오피스시스템 등 대전·세종·충남지역 14개 업체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신규 인증을 받았다.



대전경찰청,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위해

‘안전속도 5030’ 운동 적극 펼쳐

대전경찰청(청장 황운하)은 9월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속도 5030」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전시 속도 하향 구간을 최종 결정 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시부 내 간선도로의 기본속도는 50km/h로 하향, 녹지지역의 비율이 높고 시외와 연결되는 등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60km/h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청은 대전시와 협의해 거쳐 일부 구간의 속도를 하향 조정해 시범운영 할 계획으로 ▲한밭대로 3.6km 구간(갑천대교4가-한밭대교4가) ▲대덕대로 2.5km 구간(대덕대교4가-큰마울4가) ▲대둔산로 2.2km 구간(산성4가-안영교) 등 총 3개 구간 8.3km는 제한속도가 기존 60km/h에서 50km/h로 하향 조정된다.

시범운영구간에 대해서는 제한속도 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변경하는 한편 플래카드, 도로전광판 등을 이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3개월간 단속유예 기간을 두는 등 제도정착에 나선다.

이정복기자



논산소방서, 연무읍남성외용소방대장 이·취임식



홍성소방서, 소방공무원 임용식 가저



대덕구 오정동, 어르신들을 위한 초복맞이 행사



이날입 대전보훈청장, 주거여건개선사업 대상자 자택 준공기념 방문 위문

여름 휴가철에 렌터카 교통사고 가장 많아

한국교통안전공단, 최근 5년간 렌터카 교통사고 협황 분석 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5년간 렌터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7~8월)에 렌터카 교통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여름 휴가철(7~8월) 렌터카 교통사고는 6,629건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106명으로 연간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의 19.7%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역시 185건 늘어난 1,517건 발생하고 사망자는 3명에서 27명까지 늘었다.

휴가철 렌터카 교통사고를 연별 대별로 살펴보면, 10대·20대로 인한 사망자가 50명으로 전체 렌터카 사망자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10대·20대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 치사율은 차량단독사고가 5.6명으로 가장 높으며, 발생건수 역시 차량단독사고의 66.8%를 차지하고 있다. 타 연령대와 달리 10대와 20대 역시 차량단독사고 비중이 높은 이유는 운전미숙으로 인해 공작물 충돌 및 전도전복 사고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 휴가철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지역이 연간 렌터카 사망자의 41%가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단은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협업을 통해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포스터를 게시하고, 렌터카 교통사고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교통안전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사고예방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름 휴가철 렌터카 사고가 급

증하는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렌터카 교통사고위험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렌터카 대여 시 운전자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공단 권병운 이사장은 “운전미숙 등으로 인해 초보운전자가 급커브와 같은 낮은 도로환경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휴가지로 출발하기 전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지정하고, 규정속도를 지키는 등 안전한 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 당진 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

행심위 ‘중대한 손해 예방해야’...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남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충남도 지사가 올해 5월 30일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에 내린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 현대제철(주)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청구인의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현대제철(주)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충남도지사는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제2고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블러더 밸브(Bleeder Valve)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올해 5월 30일 현대제철(주)

에게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대제철(주)은 ▲ 고로의 점검·정비 시 블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 휴풍작업* 시 블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국내외 제철소에서 사용되는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제철(주)은 “현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6월 7일 중앙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중앙행심위는 ▲ 휴풍작업 시 블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 현재로서는 휴풍작업 시 블러더 밸브를 개방해 고로 내의 가스

를 방출하는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 기술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블러더 밸브를 개방해 고로 내의 가스를 방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고로가 손상되어 장기간 조업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중앙행심위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법상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청구인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하재우 행정심판국장은 “현대제철(주)이 청구한 조업정지처분 취소심판과 관련해 현장 확인, 양 당사자 및 관계기관 기술청취 등 충분한 조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김태화 병무청 차장, 정책현장 방문 사회복지부 교육생 격려



김태화 병무청 차장이 10일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지부연수센터를 찾아 복지부교육과정에서

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 김태화 차장은 교육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요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경험을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교육을 마치고 복지부교육에 돌아가서도 성실하게 복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태화 병무청 차장은 이날 충북 지역 사회복지요원을 격려하고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병배기자

당진시,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집중 위생 점검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예방 차원, 적발 시 행정처분

당진시는 최근 중국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지역 유입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8월 말까지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지 않은 불법 수입 식품 등의 판매 ▲무신고 소분 수입제품 판매 ▲무 표시 제품 유통·판매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

자를 위·변조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점검기간 중 위반사항이 발견된 제품은 현장에서 압류 후 전량 폐기 처분된다. 특히 당진시는 위반 행위 적발 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목적 보관의 경우 최대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신고 수입식품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무신고 수입 식품 판매를 금하고 식품유통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건강한 외국 식료품과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점검에 앞서 지난달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외국 식료품업소 3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한 바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세종시 “지방세도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결제 하세요”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송달·납부 서비스 확대 시행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스마트폰 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 보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송달·납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송달·납부 서비스는 은행이나 민원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 즉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다. 시는 그동안 스마트 위택스와 13개 시중은행 앱 등에서 시행하던 모바일 송달·납부 서비스를 대중적인 스마트폰 앱인 카카오오픈(카카오페이), 네이버앱(네이버페이), 페이코앱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납세자는 스마트폰의 해당 앱에서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부터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들은 고지서 1건당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종이고지서를 선호하는 시민들을 위해 기존의 고지 및 납부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세종=김태성기자

아산시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확대 지원

아산시보건소(소장 김은태)는 오는 15일부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를 11종에서 19종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출산 가정 중 고위험 임신질환 19종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이다. 지원금은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금액의 90%로 1인당 300만원 한도이다. 고위험 임신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질박출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부력증 11종과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외 임신, 자궁 내막 8종 등 총 19종으로 확대 지원된다. 아산=리량주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태안소방서, 벌 쏘임 사고 주의 당부

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최근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벌집 제거 신고 요청이 잇따르자 야외활동 시 벌에 쏘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당부했다. 벌집 제거를 위해 벌집 제거장비(벌집제거복, 말벌 구제용 스프레이 등)와 벌쏘임 과민반응 억제 약품을 각 구급차량에 비치해 민원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김경호 태안소방서장은. 말벌은 독성과 공격성이 강하므로 벌집을 발견하거나 벌에 쏘였을 경우 119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태안=김정현기자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추진

공주소방서, 관내 비상방송설비 설치 대상 157개소

공주소방서(서장 박찬형)는 비상방송설비의 스피커배선이 한 곳만 단락되면 전체 성능이 차단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내 비상방송설비 설치 대상 157개소에 대해 성능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한 층의 비상방송설비 배선이 화재 등으로 단락(합선)될 경우 증폭기(앰프)를 보호해 다른 층으로의 정상적인 화재 통보가 되도록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공주=정성범기자

아산소방서, 119다매체신고서비스 실시

119신고는 문자·앱·영상통화로

아산소방서(서장 김성찬)가 비상상황 발생 시 문자 메시지나 119 앱(App)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 119다매체신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119다매체신고 서비스는 신고방식을 문자, 영상통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경찰장 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도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새로운 신고 서비스를 말한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교육청,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대전여자상업고 등 11개교에서 102억원의 사업비 투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위해 대전여자상업고 등 11개교에서 10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내용은 노후된 급식시설과 가구 교체,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시스템 적용 위생시설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주로 하며,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일반구역과 청결구역 구분, 위생관리 및 청소가 용이한 마감재 구성, 식품의 위생적 취급·보관을 위한 냉난방 및 환기시설 개선 등이 포함된다.

공사는 방학 중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특히 금년부터는 학기 중 공사 진행으로 학교급식이 불가능하여 학부모가 외부

위탁도시락 제공을 희망할 경우에는 초·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 급식단가(4,300원)를 적용하여 도시락 공급계약이 가능하다.

이는 사업 학교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것으로 위탁급식 시장단가를 적용하여 도시락 조달과 위생사고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교육청 이광우 체육예술건강과장은 "학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공사 중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존 년수에 따라 대안학교에 대해 조속히 급식실 현대화사업이 실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2020학년도 대학입학정보박람회 개최

세종시교육청,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오는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2020학년도 대학입학정보박람회(이하 대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입박람회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대학 28개, 지방국립대학 9개, 대전·세종·충청권 소재 대학 및 분교 21개를 비롯하여 교육대학, 이공계특성화대, 특수목적대학 등 모두 64개의 4년제 대학과 15개의 전문대학이 참여하여 대학별 진학정보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행사이며, 이틀동안 총 51개 대학이 대입설명회를 진행하고, 75개 대학이 입학사정관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이 직접 주관하여 운영하는 ▲(前) 서울대 입학처장 등 대

입특강 ▲세종시교육청 대입지원단 일대일 대입컨설팅 ▲우리누리 대학생 멘토단 일대일 컨설팅 ▲대교협 대학생 전공 멘토링(20개 학교) ▲대학생 학과 체험 부스(10개 학교) ▲창업 체험 부스(5개 학교)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질 계획이다.

학생들은 이를 동안 자신의 관심대학 대입설명회와 입학사정관 일대일 컨설팅 뿐만 아니라 전공 탐색과 진로·진학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입박람회에는 검정고시,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학교부정교사를 위한 대입상담부스를 별도로 운영한다.

세종=김태선기자

충남교육청, 상반기 학생참여예산제 의견 수렴

학생 의견 2020년 예산 반영 추진

올해부터 학생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상반기에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학생참여예산제를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학생들이 제안한 의견을 검토하는 토론회를 거쳐 61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10일 밝혔다.

수렴된 의견 중 28건은 학교에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가족사랑 프로그램 운영 등 11건은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소통 공간 구축, 학생연합회 캠페인 사업 등 14건은 도교육청에서 각 부서의 검토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해 2020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학생참여예산제는 학생들이 자치활동을 통해 결정한 의견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요청하면 학교회에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학교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의견은 지역별 학생회 연합회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서 의견을 검토해 예산에 반영한다.

충남교육청 김상돈 예산과장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통해 도출된 학생들의 의견을 2020년 교육재정 예산편성에 반영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재정 운영에 한발 더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논산계룡교육지원청, 2019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유미선)은 10월 은진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2019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논산시청, 논산경찰서,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60여 명이 참석한 은진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지도를 실시하였다.

공주여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 5분'

세바시 경연 통해 세상을 보는 안목 키워... 인기 만점 경연대회



공주여자고등학교교장 이은모) 학생회는 10일 청라관에서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 세바시) 5분' 경연을 펼쳤다.

올해 3회째를 맞고 있는 세바시 대회는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5분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공주여고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통해 함께 세상을 바꿔나가는 응골진 미래역량을 배양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강연자는 1학년 4명, 2학

년 3명, 3학년 3명으로 총 10명이 참가했다.

'세바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 본인이 원하는 주제를 선정해 다른 학생들에게 공유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취지이다.

강연자는 진로와 학업, 자기계발과 관련된 자유로운 주제로 자신의 이야기를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공주=정상범기자

2019년 여름방학 다우리문화교실 개강

서부평생교육원, 서부권역 초등학교 대상으로 운영



여름방학 다우리문화교실 프로그램은 함께 어울림 교육을 통한 다양성 존중과, 교육적 배려계층의 학습욕구 충족에 의의를 두고 있으며, 교과과정 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정교교육과정과 다른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한편, '다우리 문화교실 프로그램'의 사후 강의평가를 통하여 전문성 있는 강사를 섭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더욱 질 높은 강의를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서부평생교육원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서로간의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다문화 친화적 프로그램과 모든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의 개설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영인중 '바라봄' 사제동행 멘토링 운영

세바시 경연 통해 세상을 보는 안목 키워... 인기 만점 경연대회



충남 아산 영인중학교(교장 황호서)는 지난 8일, '바라봄' 사제동행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바라봄' 사제동행 멘토링 프로젝트는 각 반의 담임, 부담임 교사가 학급 학생들과 멘토, 멘티 관계를 맺어 사제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학생의 인성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각 학급 담임과 부담임 교사는 학급 학생들을 반으로 나누어 멘토 멘티 활동을 한다. '바라봄' 노트를 활용하여 교내·외 행사와 유사한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고민, 가치관,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주제로 교사와 학생이 편하게 소통해 심

리치 거리를 좁히고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하기 중에 유대 관계를 맺어 온 것을 기반으로 하여 학기 말 행복동행주간에 야외로 나가 체육활동 및 문화 체험을 한다. 이날 이러한 계획에 따라 진행했다.

기말고사가 끝난 후라 마음의 부담이 없는 학생들은 매우 들뜬 표정이었다.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판권을 먹으며 영화를 보거나 볼링을 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 후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아산=리량주기자

전대초, 2019학년도 학부모교육 및 협의회

함께 소통하며 참여하는 행복한 전대 교육



당진 전대초등학교(교장 강희진)는 지난 9일 부지개교실에서 26명의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제2차 학부모교육이 이루어졌으며, 13시부터는 1학기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 협의회가 실시되었다.

제2차 학부모교육은 충청남도 당진시 교육삼락회에서 지원하는 학부모 대상 교육으로 당진시 교육 삼락회장 유장식 강사를 초청해 '우리 아이 미래인재로 키우기'라는 주제로 연수가 진행되었다.

우리 아이들이 기존과는 다르게 변화할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키

워야 할 능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배우기 때문에 부모의 말 한마디, 표정, 행동을 보면서 스스로의 가치관과 습관을 만들어 가므로 가정에서의 인성교육도 강조했다.

이어서 실시된 학부모 협의회에서는 1학기 학교교육활동과 학부모, 학생의 의견 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개선, 보완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행복 전대 교육을 위해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다.

당진=최근수기자

'유·초·중·고교(원)장 연수' 실시

홍성교육지원청, 충남형 자유학년제와 역사·통일 교육 방안 모색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도연)은 7월 8일부터 2차 3일간 강원도 강릉일원에서 홍성 관내 유·초·중·고교(원)장 및 홍성교육지원청 관계자 42명을 대상으로 '2019 홍성 유·초·중·고교(원)장 자유학년제, 역사·통일 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올해부터 충남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Pre-자유학기(초등학교) → 자유학년(중1) → Post-자유학기(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충남형 자유학년제의 확대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역사·통일 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1일차 연수는 자유학년제 정책에 대한 안내와 자유학년제 확대 방안 대

한 연수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어서 박제동 강사를 초빙하여 '학교 혁신 변화를 위한 조직 활성화'를 주제로 혁신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2일차 연수는 자유학년제 주제선택·예술활동 영역 활성화를 위해 오죽헌과 강릉예술창작인촌, 정동진 시간박물관을 방문하였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역사·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강릉통일공원을 방문하여 통일 의식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3일차에는 하슬라아트월드를 방문하여 학교 예술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홍성=김정환기자

대학과 연계한 생생 진로체험 실시

천안봉서중, 학생들에게 진로탐색과 학과체험의 기회 제공



벗어나 다른 장소(한국영성대학교)에서 다양한 꿈을 탐색하고 진로를 디자인해 보는 맞춤형 진로프로그램이다.

180명의 학생들은 11개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성우, 카메라감독, 이벤트MC 등)을 자신의 꿈과 연계하여 체험선택을 했고, 오전 8시30분에 (대)의 버스에 승차 후 12명의 교사와 함께 세종시에 있는 한국영성대로 향했다.

천안봉서중학교(교장 신열호)는 10일, 1학년과 3학년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대학연계 진로체험은 중학교와 대학교가 공동운영하는 교육공동체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진로탐색과 학과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교실을

오전시간에는 기초이론 및 장비체험을 하고 오후시간에는 심화이론 및 실제적인 자료제작과 발표를 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자기주도적인 진로개발의 경험을 하였다. 학생들은 방송장비를 직접 조작하고 작품을 발표하면서 마치 전문직업인이 된 것처럼 열광적인 관심을 보였다.

천안=이정복기자



대덕구노인복지관, 7월 찾아가는 행복나눔 콘서트 진행 사회복자법인 기아대책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과 다문화강학회 대덕구지회가 주최하고 (사)대한기수협회 대전지회와 (사)대한애슬문화복지사 대전협회가 주관하는 7월 '찾아가는 행복나눔 콘서트'가 10일 대덕구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됐다.

동정

한일화학공업 착공식



김홍장 당진시장 =11일 오전 10시 30분 석문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리는 한일화학공업 착공식에 참석.

준비위원회 회의



가세로 태안군수 =11일 오후 2시 30분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8회 충남도민생활체육대회 준비위원회 회의'를 주재

착수보고회



김돈곤 청양군수 =11일 오후 2시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지역활성화재단(가칭) 타당성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

시장 공약이행 평가 시민 목소리 듣는다

당진시, 시민배심원제 도입 운영 · 35명 시민배심원단 선발

당진시가 민선 7기 당진시장 공약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검증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구현코자 '시민배심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배심원단은 주민 대표성을 갖고 시의 민선 7기 100개 공약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주요 공약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정 대상 공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당진시는 공약평가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통해 무작위 추첨(ARS)과 전화면접 방식으로 35명의 시민배심원단을 선발했다.

이후 당진시는 시민배심원들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지난 9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위촉식과 함께 1차 회의를 김홍장 시장 주재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배심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매니페스토 관련 교육과 시민배심원단 구성, 평가대상 공약 선정이 이뤄졌다.

향후 시민배심원단은 이달 1일과 30일 두 차례 회의를 더 갖고 회의에서 논의한 공약 이행 권고안을 시에 전달할 계획이며, 최종 결정된 권고안은 9월 중 당진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특히 당진시는 시민배심원단이 제시한 제안사항에 대해 남은 기간 민선 7기 공약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해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김홍장 시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며 "공약 이행의 성과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배심원단이 실천사항과 방향 제시에 적극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우리/동/네

“한여름 해양레저의 향연”

태안군,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열려



태안군이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구상한 '우리동네 행복복지킴이' 간담회를 가졌다.

군은 지난 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 및 '우리동네 행복복지킴이' 등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활동경과에 대한 보고와 복지발전 방안 등의 의견을 나눴다.

'우리동네 행복복지킴이'는 지역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장 및 지역단체 외에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해, 더 촘촘하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며, 상반기 총 21건을 발굴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민간자원연계 등을 지원했다.

군은 앞으로 '우리동네 행복복지킴이'를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의 효과적 해소와 군민 복지체감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세로 군수는 "민·관이 합심해 군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사는 태안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태안군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앞장

태안군이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구상한 '우리동네 행복복지킴이' 간담회를 가졌다.

군은 지난 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 및 '우리동네 행복복지킴이' 등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활동경과에 대한 보고와 복지발전 방안 등의 의견을 나눴다.

'우리동네 행복복지킴이'는 지역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장 및 지역단체 외에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해, 더 촘촘하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

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며, 상반기 총 21건을 발굴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민간자원연계 등을 지원했다.

군은 앞으로 '우리동네 행복복지킴이'를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의 효과적 해소와 군민 복지체감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민·관이 합심해 군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사는 태안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다. 태안=김정한기자



청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열려

청양군 남양면은 지난 9일 면사무소에서 2019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이정호) 2번째 회의를 개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커뮤니티 케어)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참석한 위원들은 청양군 보건의료원 정신보건센터 관계자로부터 자살예방 생명지킴이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이정호 공공위원장은 "현재 청양군은 홀몸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통해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위원님들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발굴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양=정상범기자



3단계 공공근로 참여자 안전교육

화성면, 안전사고·주의사항 전달

청양군 화성면(면장 강선규)은 지난 8일 면사무소에서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환경정비사업에 투입되는 참여자들에게 꼭 필요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법과 폭염 대응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야외 작업이 많은 만큼 찜조기, 진드기 유충 등 감염성 질병 대처방법과 재활용품 선별작업 시 안전화 및 장갑 착용 등 주의사항이 전달됐다.

이번 사업 참여자 중 만65세 미만은 하루 5시간씩 주5일, 만65세 이상자는 하루 5시간씩 주3일을 근무하게 된다.

청양=정상범기자

온양3동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공동체 지원 사업



온양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소통·문화·나눔을 기조로 다양한 활동을 해왔으며, 주민의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문화적 혜택을 제공해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현상 위원장은 "시대에 흐름에 맞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개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형관 동장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마을 및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마을만들기 공동체 지원 사업을 통해 활기차고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활성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당진에서 플러그인 하고 '당(糖)' 채우자

당진시, SNS 콘텐츠로 시민과 활발한 소통



당진시가 2018년부터 '플러그인 당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다양한 SNS 콘텐츠를 선보이며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플러그인 당진'은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찾고 '당(糖)'을 충전하지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일종의 SNS 브랜드 전략으로, 시의 모든 SNS 콘텐츠들은 '플러그인 당진'과 상호 연계된다.

평범한 시민들의 특별한 인생 스토리를 담아내며 감동을 선사하는 '당장 사람들'과 누구나 원하면 일일 유튜버가 돼 재능을 공유할 수 있는 '배워본 당진', 당진의 잘 알려지지 않은 핫플레이스를 소개하는 '주말엔 여기 당진'에서부터 시의 SNS 캐릭터인 '당진이'와 '당당이'의 최종우물 모험기를 유쾌하게 그려낸 웹툰에 이르기까지 각 콘텐츠마다 콘셉트와 접근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행복을 충전하는 플러그인 당진을 지향한다.

이처럼 다양한 콘텐츠와 방식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다 보니 시가 운영 중인 SNS 채널의 팔로워(구독)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5년 7,000명에 불과했던 팔로워 수는 2016년 18,902명, 2017년 30,104명, 2018년 35,625명으로 해마다 증가해 올해 6월에는 4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SNS 콘텐츠에 대한 조회 수나 노출 수를 의미하는 도달률의 경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에서만 300만 건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일 채널 대비 100만 건이 증가한 것으로 시는 올해 안으로 도달률 400만 건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는 당진시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고령자가 많은 인구 17만 명의 전형적인 도농복합 도시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콘텐츠가 많다는 점 또한 시의 SNS 채널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특히 참여하는 세대 층도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소재들로 구성돼 있다 보니 당진시 SNS 채널들은 민과 관의 소통을 넘어 민과 민, 즉 시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청양군 4-H연합회 3분기 회의 열려

청양군 4-H연합회회장 복선환은 지난 9일 청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회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3분기 회의를 개최, 상반기 활동을 평가하고 하반기 계획을 세웠다.

회원들은 하반기에도 입손부족 마을 돌봄과 환경정화활동을 계속 추진해 지역에 활기를 주고 푸드트럭을 이용해 지역 농업인들에게 시원한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청양군연합회는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 7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H이념을 바탕으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학습단체다.

올해 신규 회원 19명을 확보한 청양군연합회는 2020년까지 100명 확보를 목표로 두고 있다.

복선환 연합회장은 "지역단체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하는 청년농부가 되자"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한 강상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4-H 회원들의 뜨거운 열정과 봉사정신이 어려운 농업농촌에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송악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경로잔치 열려 아산시 송악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회장 김선애)는 지난 9일, 송악면 강당골에 위치한 밤나골 민박에서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아자봉(아산시자원봉사센터)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주변에 거주하시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맛있는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안미봉사를 하며 말뚝기가 되어드림으로써 사랑을 전했다.

우리/동네

부여군 지방재정 확대 우수 자치단체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확대 우수 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에서 부여군은 추경 시기, 추경 규모, 일자리사업 규모 등 3개 분야 8개 평가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경예산 편성시기를 앞당겨 지방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 운영해 우려되고 있는 경기 침체, 고용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했다.

부여군은 일자리사업과 생활SOC사업 등에 집중투자하기 위해 당초 계획을 앞당겨 지난 3월 당초예산보다 1,573억 원이 증가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당초 계획을 앞당겨 추경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군민들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물론 예산의 신속집행과 국비사업 확보 활동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여=김성규기자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서천군 보건소, 폭염 대비 정보 제공하는 시스템

서천군 보건소소장 김재연은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의료법인 서해병원을 통해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5월 20일부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온열 질환이란 열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이 있다.

이중 열사병은 40℃ 이상의 심부체온, 중추신경계 기능 이상, 무한증이 주요 증상으로 발병 시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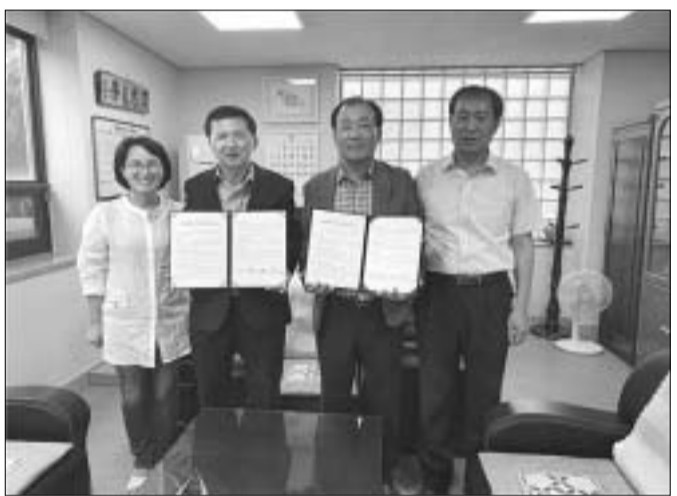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웹 신고로 실시간 온열 질환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군민들에게 폭염 대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폭염 특보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나뉘는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 대비 건강수칙으로는 ① 물을 자주 마시기 ② 시원한 물로 샤워하기 ③ 환명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④ 외출 시 양산, 모자 등을 사용하여 햇빛을 차단하기 ⑤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외부활동 자제하기가 중요하다.

서천군보건소 담당자는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평소에 숙지하고 온열 질환 환자 발견 시 즉시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풀고 시원한 물수건으로 닦아 체온을 내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천=김태선기자



주민 맞춤형 방역활동 펼친다

논산시 부적면, 위생해충제로 크린 위한 협약 체결

논산시 부적면(면장 민경근)은 부적면사무소에서 지역농협과 '위생해충 제로, 크린 부적면들기'를 위한 업무 협약을 가졌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파리·모기 등 위생해충이 증가함에 따라, 유관기관인 부적농협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감염병 없는 깨끗한 우리동네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부적면은 하절기(6월~10월)에 시행되는 방역기간 중 연무소독 8회, 잔류소독 4회로, 주 3~4회 방역소독을 시행하며, 농협은 해충이 기승을 부리는 7월~8월에 부적면 전 권역에서 매일 연무소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이외에도 ▲크린 부적면을 위한 방역업무 협조 및 감염병 예방 교육 협력 ▲지속적·안정적 방역소독을 위한 약품지원 ▲주민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약속했으며, 부적농협에서는 직원 14명을 4개조로 편성해 부적면 전 권역에 대한 연무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경근 부적면장은 "여름철에는 파리·모기 등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아지는데, 앞으로 농협과의 방역소독 협력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면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산=김태선기자

국방 국가산단 투자기업 유치 홍보전

논산시, 올해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 참가·국방 국가산단 투자유치 활동

논산시가 국방 국가산단단지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오는 10~12일 서울 COEX 전시장에서 열리는 '2019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에 참가해 국방 국가산단단지 조성 사업과 잠재 투자기업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의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엑스포에는 정부기관·학계·기업 등 132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국방분야 4차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 드론, 자율주행차, 국방무인 무기체계 등 최신 국방장비의 기술을 전시하고, 향후 국방 산업 전반



에 적용될 무인 전투체계 시스템의 다양한 사업영역 홍보는 물론 비즈니스 관계 구축을 위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국방 국가산단단지 홍보부스를 설치해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항공학교, 인근의 3군 본부 등 기존의 국방 인프라를 바탕으로 추

진 중인 국방클러스터 조성사업 소개는 물론 국방 산단 입지여건 및 입주혜택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개별 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국방 국가산단단지 조성은 논산의 경제 발전과 지역성장을 이끌어 갈 특색 있는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조기분양을 목표로 투자기업과 국방기관 유치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국방 국가산단단지는 연무읍 동산리 일원 100만㎡(30만평) 부지에 '전국 최초' 국방산업 특화산단단지가 조성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내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1년 국가산단 지정,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충청

추진위원회



노박래 서천군수= 11일 오후 2시 서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장항선셋째 스태브 추진위원회에 참석.

수련대회



박정현 부여군수= 11일 오후 5시 공남치 서문주차장에서 열리는 쌀전업 농도연합회 수련대회에 참석



천안시 물놀이 인명사고 제로화 나선다

특별대책기간 설정비상근무·안전요원 배치

의 물놀이 시설과 몽골텐트, 파라솔, 평상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평상은 10,000원, 파라솔은 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군은 물놀이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하여 급변도에 안전선스와 그늘막 설치 등 물놀이장 보강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6명을 상시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물놀이장 수위조절과 수질관리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7월 들어 본격적으로 방학과 휴가시즌이 시작되면 물놀이장 이용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어 물놀이장을 개장하게 되었으며, 이용객들의 편의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연해 등 환경 피해 발생이 최소화되고, 영농 편의 제공 등 농촌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논박래 군수는 "20여 년간 지속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의 첫발을 내딛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세부시설 설계 후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본 사업이 시행되면 앞으로 서천군의 천수답과 부사간척지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어

올 여름 피서는 굿뜨래 웰빙마을 물놀이장으로

부여군, 4종 물놀이 시설과 편의시설 구비... 내달 18일까지 운영



연일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며 집중더위가 서서히 한반도를 달구는 가운데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이 13일 개장한다.

굿뜨래웰빙마을 물놀이장은 7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37일간 운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입장료는 개인 5,000원, 20명 이상의 단체인 경우 1인 3,000원으로 할인된다. 단, 24개월 미만 어린이와 장애인 입장 이용자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굿뜨래 웰빙마을 물놀이장은 1,983㎡ 면적에 유아용 20m, 어린이용 70~80cm 깊이의 물놀이장으로 조성되었으며 워터드롭, 워터터널, 미끄럼틀, 조합놀이대 등 4종

판교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지구 확정

서천군(군수 노박래)의 오랜 주민 숙원사업인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가뭄으로 빗물에 의존하여 농사들이어가는 판교면 등 농업용수 부족 지역과 연해 피해가 잦은 서

면 부사호에 대단위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2001년 극심한 가뭄으로 판교면 주민들이 집단 민원 제기 이후 19년이 지난 올해에 사업 시작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판교지구 다목적 용수공급사업은 금강을 취수원으로 양수장 5개

소, 용수관로 119km, 물관리 시스템 등 국비 1,95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세부시설 설계 후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본 사업이 시행되면 앞으로 서천군의 천수답과 부사간척지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어

천안시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위한 보호체계 구축

3년간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전문 상담·교육 지원

천안시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천선호)는 10일 오후 2시 천안축구센터에서 관내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회복지종사자 보호체계는 근로자지원 프로그램(EAP)을 운영해

평소 사회복지사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고충을 함께 나누며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총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올해부터 3년간 개인상담·집단상담 서비스, 정서적 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 개인적 직무

스트레스, 업무 부적응, 리더십, 재무관리, 법률관리 등을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다.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내에 프로그램 센터가 구축될 전망이다. 전문 상담사도 주 1회 배치돼 운영된다. 사회복지종사자는 은오피라인으로 1인당 연 6회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보호체계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

종 언어적·물리적 폭력 등을 경험하면서 쌓였던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담토론을 확보해 활력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분영 시장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정서지원 및 업무능력 향상, 역량 강화를 도모해 서비스이용자들의 복지까지 향상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안전한 직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시장 운영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계룡시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수돗물 신뢰 UP

공급과정·수질기준 등 수록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 '적합'

계룡시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함을 알리기 위해 수돗물에 대한 정확한 수질정보를 제공하는 '2019년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배포했다.

수돗물품질보고서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되는 과정, 수돗물 수질기준, 수질검사결과 등 수돗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계룡시가 사용하는 대전 월령정수장은 대정

호를 상수원으로 하고 있으며, 대정호는 지난해 수질검사결과 생활환경기준 '좋음' 등급으로 나타났다.

또 시가 공급한 수돗물의 수질은 먹는물 수질기준 58개 전 항목에서 모두 적합판정을 받아 깨끗하고 안전한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돗물 품질보고서는 각 면·동 사무소에 책자로 비치되어 있으며, 계룡시청(http://www.gyeyong.go.kr)

홈페이지 및 계룡시 상하수도사업소(http://water.gyeyong.go.kr)홈페이지에서 전자파일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시민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이메일 또는 우편 등으로도 제공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상하수도사업소(042-840-3624)로 문의하면 된다.

권용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룡시 정기본 재산세 29억 5천만원 부과 올해 6월 1일 기준 소유자·이달 말까지 납부

계룡시는 올해 정기본 재산세(주택, 건축물) 1만 2천 7백건, 29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은 6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자, 6월 2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매도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건축물은 7월에 전액 부과 되나, 주택은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제도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에 투자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세자들이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042-840-2792)로 문의하면 된다.

특정

인당 박동진 선생 추모 음악회



김정섭 공주시장= 11일 오후 7시 30분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인당 박동진 선생 16주기 추모음악회에 참석.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김동일 보령시장 = 11일 오후 1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오후 7시 보령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고입 설명회 참석.

서산태안 기업인 조찬간담회



맹정호 서산시장= 11일 오전 7시 베니키아호텔서산에서 열리는 서산태안 기업인 조찬간담회에 참석, 오후 2시 서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23회 서산시 여성대회에 참석, 오후 6시 부여 공남지에서 열리는 제15회 한국쌀전업농 충남도 회원대회에 참석.

하계 전국 교육장 협의회



이준호 보령교육장= 11일 오전 10시에 단국대학교(천안)에서 열리는 2019 충남교육청 수시모집 진로진학박람회에 참석하며, 오후 1시 30분에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리는 하계 전국교육장 협의회에 참석.

인구 감소세 둔화...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공주시, 다음 달 연구용역 결과 반영해 내년부터 인구정책 주요사업 추진

공주시 인구 감소세가 올해 들어 현저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규덕 문화관광복지국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6월말 기준 공주시 인구는 10만 7101명으로, 2018년 12월 기준 10만 7581명에 비해 480명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민선 7기 출범 직전인 지난해 6월말 기준과 비교해선 425명이 감소했고, 10년 전 12만 4172명에 비해선 1만 7071명이 줄어들었다. 이 같은 인구 감소 요인으로선, 우선, 출생 대비 사망인구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올 상반기 출생과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보면 출생은 291명인 반면 사망은 540명으로 나타났고, 지난해에는 268명이 태어남과 동시에 57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전입보다 전출이 많기 때문인데, 올 상반기 전입은 7110

명, 전출은 7346명으로 전출이 236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2년 가장 많은 7450명이 감소했는데, 이 같은 현상은 같은 해 7월 출범한 세종시로의 전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서산시 야외물놀이장 오는 15일 개장

안전하고 쾌적한 운영 위해 민반의 준비, 다양한 부대시설 갖춰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종합운동장 내에 설치한 야외 물놀이장이 오는 15일 개장을 앞두고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야외 물놀이장은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들과 유아들을 위해 물 높이를 30cm 이하로 조정해 여름철 어린이와 유아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외 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을 별도로 배치하고, 구급약품과 상비약도 상시 비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야외 물놀이장이 본격 운영되면 아침저녁으로 매일 2회 물놀이장 바닥 청소를 실시하고, 물은 1일 1회 전면 교체해 최고 수준의 깨끗한 수질을 유지 관리하고 어린이와 유아들이 물놀이를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상의 물놀이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치질 없이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종민 체육진흥과장은 "어린이 및 유아 등 가족들과 함께 무더운 여름을 물놀이장에서 시원하게 보내길 바란다"면서 "야외 물놀이장을 찾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산시에 따르면 서산종합운동장 내 야외 물놀이장은 지난 2015년 전체면적 830㎡, 수조면적 600㎡ 규모로 한 번에 최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 개장했으며, 지난해에는 35일간 평일 1300명, 주말 4000명 이상이 방문해 운영기간 동안 총 7만4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들어 이 같은 인구 감소 현상은 현저히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월에는 212명이 감소했지만 2월에는 194명, 3월 113명, 4월 26명 감소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고, 특히 지난 5월에는 45명, 6월에는 20명이 늘어나면서 증가세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다.

시는 현재 인구증가 종합대책으로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기업·기관 유치 △일자리 확충 △출산 장려책 강화 △사업체·기관 대상 인구유인책 수립 등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심규덕 문화관광복지국장은 "공주시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가 다음 달 완료될 예정"이라며 "이를 반영해 2020년부터 인구정책 주요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주=정성범기자

공주시 이인면 달리는 기차인

이정희의... '공주역' 활성화 모색

공주시 이인면(면장 신현조)이 지역 현안과제인 KTX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 이인면 이장들과 함께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면은 지난 9일 이인면 이장단협의회와 기관·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역에서 출발해 여수까지 가는 KTX 고속열차를 타고 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주역 소재지로서 이인면과 공주역 관계자가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 고민을 하던 중, 달리는 기차 안에서 이장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공주역과 공주시를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이들은 달리는 고속열차 안에서 이장회의를 비롯해 공주역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진행했으며, 여수역에 도착해 여수와 순천을 돌아 보며 공주시에 접목 가능한 관광 상품 등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조용식 이인면 이장단협의회장은 "공주는 관광도시로서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만큼 관광객들이 공주에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공주역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신현조 면장은 "이번 이장회의가 단 한 번의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것이라 KTX 공주역과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민과 관이 서로 고민하고 토론했며 장기적으로 공주역을 이용하는 고객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신비의 바닷길, 무창포 해수욕장 13일 본격 개장

8월 18일까지 운영... 다양한 체험 가능한 최고의 가족단위 관광지

지난 1928년 서해안 최초로 개장한 해수욕장이자, 신비의 바닷길, 낙조로 유명한 무창포해수욕장이 오는 13일 문을 열고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휴양을 선사한다.

보령시는 오는 13일 오후 5시에 무창포해수욕장 잔디광장에서 무창포해수욕장 개장식을 열고 오는 8월 18일까지 37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창포관광협의회가 주관하는 개장식은 오후 1시 무사기원을 위한 수신제를 시작으로 오후 4시 30분에는 러시아 민속공연이 열리고, 이후 5시 개장식과 축하공연, 관광객 노래자랑으로 진행된다.

지난 1928년 서해안 최초로 개장된 무창포 해수욕장은 백사장 길이 1.5km, 수심 1~2m로 완만하며, 해안가의 송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있어 해수욕과 산림욕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또 간조(干潮) 시에는 석대도까지 1.5km에 이르는 S자형으로 갈라진 바닷길을 걸으며 해삼, 소라, 낙지 등을 맨손으로 건져 올리는 쫄쫄한 재미도 맛볼 수 있어 주말을 비롯한 성수기에는 일 평균 5만여 명, 비수기에는 3000~50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아울러 무창포타워 전망대에서는 보령의 명산 성주산과 국민관광지 대천해수욕장, 무창포구와 어우러진 낙조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고, 대형 콘도와 민박, 펜션, 카바나, 캠핑장 등 다양한 숙박시설과 싱싱한 제철 수산물도 맛볼 수 있어 최고의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시는 신비의 바닷길과 함께 하는 편안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개장 전 화장실과 급수대 등 편의시설을 정비했고, 개장 기간에는 시 공무원과 보령경찰서 등 공공기관은

물론, 한국해양구조단 보령지역대, 무창포 119 시민수상 구조대, 응천자율방범대, 무창포관광협의회 등 1일 평균 84명을 배치해 종합상황과 안전, 물놀이 안전, 치안 및 질서 계도, 환경정화, 응급진료 등 피서객을 위

금산군립도서관 '1박2일 어린이 독서캠프' 개최

8월 8~9일까지, 책읽기 경험 통해 긍정적 인식 변화

금산군립도서관(기적, 추부, 진산)은 충남도립도서관 공모사업 선정으로 오는 8월 8일~9일까지 진산면 '진산행복누리센터'에서 어린이 독서캠프를 개최한다.

금산군립도서관 독서캠프는 도서관을 벗어나 탁 트인 공간에서 포레 친구들과 즐거운 책읽기 경험을 통해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관내 도서관에서 각자 진

행하던 1박 2일 행사를 통합함으로써 금산군 내 모든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 미가 담긴다. 캠프의 주제는 '여름'으로 선정했다. 여름에 관련된 도서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독서퀴즈 및 독서체험활동, 어린이 문화공연, 작가와와의 만남 등이 계획되었다.

도서관 관계자는 "그동안 도서관 안에서 진행하던 하룻밤자기도 큰

호응을 얻고 있었지만, 변화의 시기가 필요하다고 느낀 시점에 도립도서관 공모사업 선정으로 이번 독서캠프를 진행하게 됐다"며 "그동안 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1박2일동안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접수는 7월 20일 오전 9시부터 기적의도서관 추부도서관 진산도서관에서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기적의도서관(041-750-4482), 추부도서관(041-750-2966), 진산도서관(041-750-2953)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령=김정미기자

공주=정성범기자

우리/동네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 납부기간 운영

서산시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서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세율은 사업장 연면적 1㎡당 250원이며, 건축물 연면적이 330㎡ 이하 사업장과 종업원의 보건, 휴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전자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게 되므로 이달 말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세무과 ☎041-660-2283로 문의하면 된다.

서산=김정환기자

지방재정확대 추진실적 평가

금산군 '우수 자치단체' 선정

금산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확대 추진실적 평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재정인센티브 1억 원도 확보했다.

'지방재정확대 추진실적 평가'는 정부가 경기침체, 고용감소 우려 등을 염두에 두고 효율적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재정지출확장 방안이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일자리 확충 등 지방재정 지출확대를 이끌어낸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준다. 3개 분야 8개 지표를 중심으로 추정시기, 추정규모, 일자리 예산규모 등을 종합 평가한다.

금산군은 2019년 본예산(3927억원) 대비 24.94%가 증가한 979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시기도 2~3개월 앞당기면서 평가 지표 모두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향기 있는 사계절 꽃단지 조성'사업은 지역민 직접 고용에 따른 농촌 일자리 창출효과와 유희공간 활용으로 불거리 제공, 힐링 문화공간 조성등 주민참여형 일자리사업 발굴에서 창의적인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문정우 군수는 "우수기관 선정은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SOC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재정을 운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재정확대는 물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주연기기자

공주 '장애인종합복지관' 15일 개관

연간 2800여 명에 서비스 제공... 8개 사업 운영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이달 말까지 개관한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민선7기 공약사항인 '장애인 지원사업 전면 확대' 중 대표적 사업으로 충남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던 기초사업을 확대 실시해 장애인의 편의와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요구로 자리매김할 복지관은 구 보건소 별관을 리모델링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주요시설은 주간보호실과 재활실, 치료실, 프로그램실, 구내식당 등을 갖추고 있다.

복지관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오는 2023년까지 위탁을 맡아 장애인 편의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향상지원 사업과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 등 8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연간 2800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관은 오는 15일 개관한 뒤 이용자 접수와 상담, 진단 등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장애인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오는 17일 복지관에서 사전설명회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장애등급제 폐지와 맞물려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원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호 공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우리시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심규덕 문화관광복지국장은 "기존 복지시설 이용자의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과 더불어 신규 이용자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을 통해 장애인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 여름아 부탁해 (KBS1 오후 8시25분)



급히(이영은 분) 가족은 사라진 여름이(송민재 분)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준호(김사현 분)는 상미(이채영 분) 가족과 식사 중 여름이와 관련한 연락을 받는다. 한편 상미는 준호와 함께 산부인과에 가는데...

▲ 수상한 장모 (SBS 오전 8시30분)

신단은 운우혁과 결혼하게 되나? 수진과 만수의 고소로 인해 유치장에 갇혀버린

케이블 영화

▲ 공조 (OCN 오후 5시 10분)

비밀리에 제작된 위조 지폐 동판을 탈취하려는 내부 조직에 의해 작전 중 아내와 동료들을 잃게 된 특수 정예부대 출신의 북한형사 '림철병'(현빈). 동판을 찾아야만 하는 북한은 남한으로 숨어든 조직의 리더 '차기성'(김주혁)을 잡기 위해 역사상 최초의 남북 공조수사를 요청하고, 그 적임자로 철병을 서울에 파견한다. 한편, 북한의 숙내가 의심스런 남한은 먼저 차기성을 잡기 위한 작전을 계획하고, 정직 처분 중인 생계형 형사 '강진태'(유해진)에게 공조수사를 위장한 철병의 밀착 감시를 지시한다.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철병과 임무를 막아야만 하는 진태.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일. 한 달이 될 수 없는 남북 형사의 예측불가 공조수사가 시작된다!



은석,제니는 맨발로 뛰어와 수진과 만수에게 은석을 풀어달라 소리친다. 하지만 수진은 여유로워 보이는 표정으로 제니를 약 올리고, 분노한 제니는 동주의 힘을 합쳐 은석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 절대그이 (SBS 오후 10시00분)



영구는 벨트다운까지 남은 시간이 한 달 뿐임을 알게 되고 슬퍼하는 다다를 보며 어떻게든 살겠다고 마음먹는데... 그러다 다다와의 기억을 모두 지우는 초기화만이 벨트다운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알게 된다. 그로부터 며칠 후, 초기화를 위해 스위스에 갔다가 돌아온 영구는 다다모르게 자신만의 비밀을 안은 채 그녀의 곁에서 떠날 준비를 한다.

▲ 배틀쉽 (채널CGV 오후 7시20분)

지구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 바다에서 시작된다! <트랜스포머>, <지.아이.조>의 하스브로 원작! 전 세계 해군들이 한데 모여 훈련하는 림팩 다국적 해상 훈련. 해상 합동 훈련 첫 날, 태평양 한 가운데에서 정체불명의 물체가 발견되고 웨인 함장리안니슨은 수색팀을 파견한다. 괴물체에 접근한 하퍼 대위(테일러 키치)가 물체에 손을 가져다 댄 순간, 엄청난 충격과 함께 괴물체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대한 장벽을 구축한다. 레이더도 통하지 않고, 부딪히는 순간 모든 걸 파괴시키는 엄청난 위력의 장벽을 시작으로 지구를 향한 대규모 선재 공격을 감행하는 외계의 존재들! 목적조차 알 수 없는 그들의 엄청난 공격에 평화롭던 지구는 순식간에 초토화 되기 시작하고, 이들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해 육해공을 넘나드는 전 세계 연합군의 합동 작전이 펼쳐지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외계 존재와 전 세계 다국적 연합 군함의 전면전이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시작된다!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브라질 포르탈레자·플루미넨시 구단과 국제 교류 협약

대전시티즌, 선진 축구 기술 배울 수 있는 연수 제공



대전시티즌이 브라질 1부리그(세리에A) 포르탈레자(Fortaleza), 플루미넨시(Fluminense) 구단과 국제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전과 양 구단은 향후 선수 이적시, 우선 협약을 전제로 구단 대 구단의 계약으로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또한 1부 B팀 선수에 대한 무상 임대 및 무상 임대 후 이적에 관

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우수 선수 및 유망주의 수급, 중계인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소년 지도자 및 선수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선진 축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연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앞서 발표했던 혁신인에 포함된 유소년 특별 관리 시스템의 일환이다. 대전은 혁신인을 통해 '유소년 육

성목표를 달성적이지 아닌 프로선수 배출로 재설정하고 우수 선수 특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발표 한 바 있다. 포르탈레자의 마르셀로(Marcelo Paz) 회장은 "양 구단 선수 교류 및 유소년 지도자, 선수 교류를 통해 양 구단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플루미넨시의 마리오(Mario Bittencourt)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구단이 우호 관계가 증진되길 바란다. 또한, 발전적인 관계 구축을 통해 대전시티즌의 1부 리그 승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전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타 대륙별, 국가별의 우수 팀과의 국제 교류 협약을 통해 선수 영입의 거점 마련 및 선진 축구 문화 습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대전시립미술관 '예술이

살아있는, 대전방문 어때요'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대전시립미술관이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 대전시립미술관은 내달 13일부터 11월까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함께 누리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라이브 미술관'을 연다. '라이브 미술관'은 삶다, 삶, 살아있는이라는 뜻을 가진 영단어 LIVE에서 차용해 우리가 사는 대전의 삶속에서 예술을 통한 살아있는 교감과 공감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

선승혜 대전시립미술관장은 "미술관이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임을 알리고 대전의 대표 문화 행사로 확장하고자 한다"며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대중적인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진정한 공감미술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라이브 미술관'은 여러 관람객 층을 고려해 성악, 국악, 합창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4차 산업혁명특별도시 대전의 정체성을 반영한 과학예술 콘서트, 지역예술인 협업 행사 등을 미술관 내부에서 선보인다.

또한 미술관 전시 연계 프로그램과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도 운영 될 예정이다.

첫 무대 '한 여름밤의 꿈'은 7월 13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미술관 분수광장에서 '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공연이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보헤미안 랍소디, 시네마 천국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곡뿐만 아니라 감성 보컬 '넬로'의 무대도 마련된다.

한편, 대전시립미술관 '라이브 미술관'은 대전 문화방송(MBC 유튜브/YouTube) 채널 내에서 영상 시청이 가능하며 특별 텔레비전 방송으로도 제작 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아산시 '신정호 물놀이장' 오는 13일 새롭게 개장

8월 25일까지 총 44일간 본격적인 운영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여름철 무더위를 식혀줄 '신정호 물놀이장'을 새 단장하고 오는 7월 13일(토) 개장해 손님맞이에 나선다.

개장 당일은 이용객들에게 새롭게 확장·조성한 신정호 물놀이장을 홍보하기 위해 개장식 및 무료 입장을 실시하고 8월 25일(일)까지 총 44일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지난해 신정호 물놀이장의 시설 노후 및 이용자 안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휴장하고 새 단장했다. 올해 물놀이장을 확장하고 유아풀과 물놀이용 조항 놀이대, 워터드롭 등 신규 놀이시설을 추가했다.

아산=리무진기자

공주도서관, 어르신 대상 큰글자 도서 독서활동 지원

독서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 운영



공주교육지원청공주도서관(관장 박찬희)이 7월부터 매달 2회 금

강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큰글자 도서 책 배달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3월부터 시행한 '책 읽어주는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이 책을 읽고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끔 지원하는 모습에 감동받아 그림책과 큰글자 도서 20권을 한 달에 2번 지원하는 책 배달 서비스를 계획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케이블 & 위성방송

Table listing various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OCN, MBC, YTN, etc.) and their program schedules.



산림청, 국민멘토단 권역별 간담회 열어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이달 10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대전, 광주, 대구에서 '국민멘토단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유병훈 아산시 부시장, 이·통장 체육대회 격려 유병훈 아산시 부시장은 10일 청양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된 제9회 충청남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입장하는 아산시 이동장 전원에게 일일이 인사하며 화합의 체육대회가 되기를 기원했다.



세종시교육청-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업무협약 체결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10일 세종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세종시 초·중·고등학교의 진로·직업 교육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폴리텍 IV대학 & 맥키스컴퍼니 업무협약 체결 한국폴리텍 IV대학 대전캠퍼스(학장 이인호)는 10일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주)맥키스컴퍼니(사장 김규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폴리텍 학생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고 각종 이벤트 및 홍보활동을 공동 지원하기로 했다.



'건협사랑어머니봉사단' 1사1촌 유성구 세동마을서 봉사활동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본부장 김민수) '건협사랑어머니봉사단'은 10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유성구 세동·통경로당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단 20명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보다편안하고 쾌적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안팎환경정리를 실시했다.



청양군 화성면체육회, 장애인학생제전 금메달리스트에 격려금 전달 청양군 화성면체육회(회장 송요한)는 지난 9일 면사무소에서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금메달을 따낸 이진경(청양고 2년·화성면 구재리 거주) 선수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계룡대근무지원단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조성 위해

'병영문화혁신 대토론회' 개최

계룡대근무지원단(이하 계근단은 10일 병사들의 '꿈과 희망이 있는' 군 생활을 유도하고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간부·병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계근단은 계룡대·자운대 지역을 방호하고, 각 군 본부 및 국군 교육부대에 대하여 근무지원을 하는 부대이다. 따라서 경제발전, 복지·편의시설 운영, 관사 및 간부숙소 관리, 수송지원 및 각종 행사 지원 등의 임무를 365일 24시간 수행 중이다.

이번 대토론회는 부대의 독특한 임무수행 여건을 고려해 '병 일과 후 휴대폰 사용 및 평일 외출'과 '한라에서 백두까지' 체력단련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등 자율과 책임 아래 '꿈과 희망이 있는'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 주제는 ▲ 일과 후 휴대폰 사용지역 확대 및 사용시간 조정 ▲ 평일 외출 불가부서

대체외출 방안 ▲ '한라에서 백두까지' 병사 체력단련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등이다. 휴대폰과 사용지역 확대 관련하여 관리대대 임성준 상병은 "근무지, 군사보안구역은 제외하고

모든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사용했으면 한다"라고 건의했다. 또한, 평일 외출 불가부서 대체외출 방안에 대해 지근단 수송대대 이환준 병장은 "병영에 임무수행으로 외출이 불가하니 주말 외출 1회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체력단련 프로그램 활성화 관련해서는 공병대대 이찬주 상병이 "달리기 측정 앱 활용, 부대별 대항전, 운동강습 재능기부 등" 다양한 방법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지휘관·주임원사, 인사담당 등 간부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병사들의 발표를 경청했다.

이정복기자



대전직능원, 정신장애인의 고용 활성화 도모하고자

정신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네트워크 간담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이하 대전직능원)은 10일 정신장애인의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신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전직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장애인표준사업장, 정신장애인재활기관이 참여해 정신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네트워크 협의회를 구성했고, 정신장애인 특성에 기초한 직업

훈련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4차간 취업지원 통합 전달체계를 구축했다.

이상택 원장은 "정신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네트워크 협의회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정신장애인 직업훈련이나 취업유지 등의 사례를 상호 교환해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서산시 인지면 - 화성시 동탄2동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서산시 인지면(면장 한명동)에서 지난 9일 자매결연도시인 화성시 동탄2동 행정복지센터 앞 광장에서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했다.

이번 농산물직거래장터에는 인지면행정복지센터(면장 한명동), 인지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유덕관), 인지면농업경영인회(위원장 김동운)에서 13명이 참여했으며, 트럭 2대에 난지형마늘 1,500kg, 양파 500kg, 서산6쪽마늘 100kg을 가지고 가서 판매했다.

이번 농산물직거래장터는 난지형마늘, 양파 가격이 전년 대비 많이 하락한 가운데 재배 농가에게 적절

한 가격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로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다. 농가가 직접 생산해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유통경로 없이 이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동탄2동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뜨거웠으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농산물직거래장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한명동 인지면장은 "인지면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동탄2동 주민들은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서산=김정민기자

호서대학교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팀

'2019 젊은연극제' 연출상 수상



호서대학교(총장 이철성)는 문화예술학부 연극전공 소속 3학년 재학생들로 이루어진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팀이 최근 열린 2019 젊은연극제에서 연출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27회를 맞이하는 젊은연극제는 1993년부터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국내 최대의 공연예술 페스티벌이다.

호서대학교는 연출, 배우, 기술, 기획, 무대 총 5개의 분야에 대한 수상 중 연출상을 수상했다. 연출을 맡은 황서희 학생은 "학교폭력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가해 학생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 더 나아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잘못된

연습들을 무대 위 '프레임'이라는 무대 장치를 등장시켜 상징적이며 많은 의미를 담아 표현하고자 했다"고 작품의도를 밝혔다.

곽유경, 김소연, 김대현, 권다슬, 박우진, 엄민욱, 유예, 윤하은, 이계인, 이담희, 이동행, 이우진, 이혜진, 임채현, 임해빈, 장유림, 장은진, 조성호, 최정원, 최지훈 학생이 배우로 참여하고 백지훈 이재현, 정지수, 황서희 학생이 제작진으로 참여했다.

연극전공 학과장 김대현 교수는 "좋은 팀워크 속에서 서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활발하게 나누는 것이 좋은 성과를 이뤄낸 것 같다"며, "물심양면 지원해주신 학교 측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재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호서대학교 문화예술학부 연극트랙은 1997년 개설되어 올해로 22주년을 맞아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연극 만들기를 통해 능력 있는 공연예술인 양성을 목표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산=리량주기자

한전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력설비 체험 프로그램

동마고 초청, 미래 전력인재 육성교육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본부장 박병욱)는 지난 10일 동아미이스터고등학교 1학년 학생 79명을 본부로 초청, 미래 전력인재 육성을 위한 전력설비 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전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카이스트 교육기부센터 및 브릿지사회적협동조합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기부 협약 체결을 통해 함께 추진한 것으로, 동아미이스터고 학생들에게 향후 한전을 비롯한 전력산업 분야로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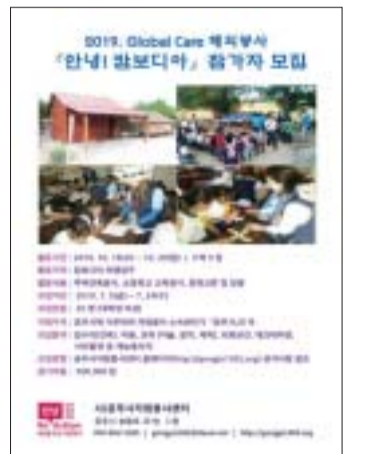
초청된 학생들은 ESS 및 전기차 충전설비,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

변전소 등 전력설비를 견학하고 한전에 재직중인 선배로부터 취업정보 등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엔 카이스트이동해미레산업과 관련된 이공계 진로특강을 진행하는 한편 카이스트 연구실 및 기업 탐방 등 전력산업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시행했다.

이외에도 한전 대전세종충남본부는 이달 말 대덕구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초청, 드론체험을 비롯한 미래사회 진로체험을 마련하는 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송병배기자

Global Care '인녕! 캠프' 디아·해외봉사 참가자 모집



공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신홍현)에서 '인녕! 지구촌만들기 프로젝트'로 열악한 환경으로 도움이 필요한 캄보디아에서 해외봉사활동을 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7월 2일까지이고 모집인원은 20명이며 대학생 이상 공주시에서 거주하며 공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자로 규정한다.

2019 Global Care '인녕! 캠프' 디아·해외봉사 참가자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3박 5일간 캄보디아 씨엠립주에서 주막건축봉사, 초등학교 교육봉사, 문화교류 및 탐방으로 진행된다.

봉사자 모집분야는 집수리(건축), 미용, 교육(미술, 음악, 체육), 의료보조, 레크레이션, 사진촬영 등 재능기부가 가능한 봉사자들이다.

신청방법은 공주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http://gongju1365.org>)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되며, 참가비는 50만원이다.

공주=정성범기자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소통하는 家 II 알쓸청소'



대전시는 관내 거주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오는 13일 오후 2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소극장에서 가족소통 연극 '소통하는 家 II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청소년-부모 소통연극(일출청소)'를 개최한다.

이번 연극은 청소년 자녀의 진로, 학업, 친구관계에 대한 고민을 그리고 청소년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상황에 대한 해소 시간을 마련하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다.

대전시가 올해 가족특화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이번 연극은 가족내 성평등 인식 개선과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한 갈등 해소 등을 주제로 지난 5월 개최된 '소통하는 家 I'을 포함해 7월, 9월에 걸쳐 총 3차례 개최된다.

김태선기자

본사손님
 ▲ 이나영 대전 동구의회 의장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www.daejeontoday.com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우빌딩 7층

성현기의 음악이야기



성현기 팝 컬럼니스트

You Needed Me로 친숙한 앤 머레이(Anne Murray)를 떠올리면 차분하고도 조용한 음성으로 노래하는 여인을 연상하게 된다. 가수가기 보다는 성숙한 여인으로 각인된 이미지이다. 시골 학교의 선생님이었던 인자하고 약간의 보수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앤 머레이(Anne Murray)는 가수가 되기 이전에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를 하기도 했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탄광촌인 노바스코티아에서 태어나 캘리 포스에서 대학을 졸업한

팝스타 앤 머레이(Anne Murray)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꿈과 용기’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

Anne Murray는 어릴 적부터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막상 교사가 되고 보니 산촌에서 마음껏 뛰놀며 노래를 부르던 지난날이 그리워 부모님의 만류에도 교사직을 그만두고 일부 주변 사람들에게 ‘철없는 행동’이란 조롱까지 당하며 가수의 길을 선택 했다고 한다. 필자는 대학시절 Down Town에서 DJ를 하면서 본업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시골에서 여러 형제를 각지로 유학(?) 보낸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는 의도였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 낮과 초저녁에 음악다방이나 감상실에서 2시간씩 뮤직 박스에 들어가기도 늦은 밤까지요즘 표현으로 주축이 난무하는 주점에서 DJ로 일했던 적도 있었다. 당시 주점의 DJ 자리는 실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음악다방이나 감상실에 근무하는 DJ들이 높은 급료를 받으려고 일과가 끝난 후에 한 타임 더 뛰는 곳이었고 후덕한 사장님을 만나면 술과 안주를 공짜로 먹을 수 있어서 당시 만연 자취생이었던 필자 입장에서는 더없이 요긴한 공간이었다. 교육학을 전공한 필자는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스스로가 얼마나 음악을 좋아하는지를 뒤늦게 알게 되면서 본업으로 여기지 않았던 DJ가 본업이 되고

말았다.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고 Down Town 음악실에서 음악의 폭을 넓혀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부모님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앞날이 걱정되는 정신 나간 사람이란 편견과 걱정을 피할 수가 없었다. 방송에 입문한 후에 그런 염려와 걱정이 찬사는 아니더라도 격려보다는 조금은 더 후한 언어들로 바뀔 때 필자가 느낀 것은 삶의 방향에 변화를 주는 것이 어지간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요즘 학원가에 공시생이 넘쳐난다고 한다. 물론 이들 중에는 국민의 지팡이가 되겠다는 각오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정년이 보장된다는 안정된 직장에 안주하려는 젊은이가 우리 주변에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인데 안타까운 현실이다. 필자는 젊은이들이 좀 더 다양한 꿈을 갖고 미래를 설계해야 이 땅에 희망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호흡하는 지구촌의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를 내다봤다면 지금의 젊은이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도 지금처럼 공무원 정년이 보장될까? 필자는 절대 아니라고 본다. 살면서 몇 번씩은 삶의 방향을 좌로 또는 우로 변화를 줘야하는 상황을 맞게 되는데

미래에는 이런 변화의 폭이 더 넓어질 것이다. 도전은 하고 싶은데 그간 걸어진 길에서 축적해온 것들이 아깝고 낯선 미래가 불안해서 망설이거나 혹은 나이와 주변의 이목 때문에 결단을 못 내리기도 한다. 앤 머레이(Anne Murray)가 하던 일과 비교적 안정된 직장에 미련이 남아 변화를 거부했다면 정숙한 목소리로 세계인의 귀를 즐겁게 하지 못할 채 아쉬움 가득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살면서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은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 결정은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것이지만 선택해주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려운 시기는 있기 마련이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겪는다면 더 많은 열정의 에너지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꿈을 가지면 처음 접하는 것들이 낯설음보다는 새로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앤 머레이(Anne Murray)를 1978년 그래미 어워드에서 최우수 여성컨트리 가수 상을 받게 한 1977년 히트곡 ‘내게 필요했던 당신(You Needed Me)’을 들으며 가슴 한켠에 새로운 꿈과 용기를 담아두면 이 여름의 태양만큼이나 열정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설

국민은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원한다

한국사회에선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세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전체 10명중 8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 2월 내놓은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80% 이상이 소득격차가 너무 크고 공정성도 약해 정상적으로 출세할 수 없는 사회라고 응답했다. 우리사회가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 간 불평등에 노력한 만큼 보상도 받기 힘든 불공정 사회란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깊게 뿌리 내려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전국 성인 3873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는 응답은 85.4%에 달했다. 성공하는데 부유한 집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매우중요’ 31.7%, ‘대체로 중요’ 49.2%로 전체 80.9%가 부유한 집안 배경이 인생성공에 영향을 준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66.2%였지만 법집행이 평등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답은 12.5%에 불과했다.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지만 돈 없고 배경 없는 출세할 수 없는 나라. 고위인사 비리에 대한 법집행 역시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

고 있는 나라가 ‘한국’인 셈이다. 빈부차이가 심해지면 국민적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 바닥을 벗어나려 해도 신분이 발목을 잡아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회에선 꿈과 희망을 말할 수 없다. 여기에 만인에 공평하다는 법 적용에 까지 불신이 틈을 보이는 사회라면 더 말할 무엇 하겠는가. 국민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현실과 사회구조적인 실제 흐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계층 간 이동이 힘들어지고 있던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사법기관들의 내 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적지 않은 것도 부인해선 안 된다.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이대로 고착된다면 국민적 무기력이나 소외감으로 인한 불안정성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사회 질서의 근간인 규범이나 가치가 흔들리는 혼란의 상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던 것이다. 소득에서부터 노동, 교육에 균형의 원칙이 적용되고 정상적인 사고가 곧 사회의 원칙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 국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이유 없기에 더욱 그렇다.

각계 유튜브 홍보 관심 가져야

온라인 공유 동영상서비스인 유튜브에 ‘한우’를 검색하면 10분짜리 동영상 몇 편이 나온다. 과연 한우고기를 먹기만 하는 영상을 누가 보며, 과연 몇 명이나 봤을까? 한우고기와 일본 외우고기를 비교한 영상은 조회 수 78만회를 넘고, 한우고기를 처음 먹어보는 한 외국인의 영상은 540만회를 넘을 정도로 인기다. 영상에서 외국인들은 ‘마시쎬’를 연발하며 불판위의 한우고기를 연신 집어먹는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은 외교관 100만 명 보다 유튜브 한편이 낫다고 댓글을 올린다. 정말 맞는 말이다. 축산업계 역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튜브 강화를 나서고 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부위별 한우고기 활용법 동영상을 구축하며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도 유튜브에 돼지고기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담은 동영상을 올렸다. 유전자조금관리위원회는 관련 홍보영상을 찍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다. 이러한 홍보 방법은 지자체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지자체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또는 시장 홍보를 위해 관련 동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 정말 외교관 수십 명 보다 잘 찍은

동영상 한편이 훨씬 낫다는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문제는 관련 동영상이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때문에 관련 동영상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찍어야 한다. 단순히 전문가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려 하는 시도는 크게 실패하고 있다. 실제 일반 유튜브가 올리는 동영상은 수십만, 수백만 조회 수를 기록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반면, 각 단체에서 올려놓은 영상들은 조회 수가 1000회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련 영상을 관련자들만 보고 끝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소비자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각 단체는 광고 마케팅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의 의견을 듣고, 소비자들의 경험을 유튜브에 올리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소비자에게 관련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것을 규모 있게 공모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공모 상금이 크다면 많은 유튜브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영상을 응모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인플루언서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 인플루언서란 유튜브나 여러 SNS에서 수십만 명의 독자를 보유해 영향력이 큰 사람을 말한다. 외교관 100만 명 보다 낫다는 동영상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기고

보행자에게 안전한 도로를 돌려주자



김기용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위원

는 도로가 다양한 교통수단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인식과 함께 그동안 자동차 통행중심에서 보행자의 통행안전에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교통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상에서 자동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가능성과 사고시 피해정도를 줄이고, 보행자와 같은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시 지역 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을 시속 50km와 30km로 적용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도시지역 도로의 기본적인 제한속도는 시속 60km를 적용해 왔으며, 스톱존과 같은 보호구역 중심으로 시속 30km이하의 제한속도를 적용해 왔다.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수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들(35개국)과 비교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하위권(31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교통안전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교통사고로 인해 잃고 있다는 점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보행사망자가 40%가 넘고 대부분이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속도 5030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제한속도를 낮추게 되면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을 가중해 볼 때,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사망확률을 30% 줄일 수 있고 시속 50km에서 30km로 낮추면 추가적으로 사망확률을 35%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교통안전선진국의 경우 도시지역에 대한 제한속도를 50km이하로 적용하는 정책을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도시지역에서 도로주변의 여건을 반영하여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 20km, 10km 등으로 세분화해서 적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연구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한속도의 하향은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20~30%) 및 사망자수 감소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은 두 다리를 이용한 보행이다. 보행은 고대 원시시대에서부터 현재의 문명사회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의 모든 교통행위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행위의 중심이었던 보행은 20세기 초 자동차의 등장으로 관심밖으로 서서히 밀려나게 되었는데, 점점 더 복잡해지는 문명사회 속에서 교통은 얼마나 빨리 그리고 멀리 갈 수 있는지가 중요시 되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은 자동차가 보다 쉽게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서 도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집중되었다. 우리는 흔히 도로가 자동차만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도로는 보행자를 비롯한 자전거, 오토바이와 같은 다른 교통수단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다양한 교통수단과 같이 도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행자는 교통안전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교통수단간의 충돌 즉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행자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보행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제한속도를 시속 50km이하로 설정하는 근거는 도시지역에서 복잡 한 도로망으로 인해 교차로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교차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이 차량간의 측면직각 충돌사고이다. 이러한 교통사고 유형에서 충돌시 차량의 속도가 시속 50km 이하였을 경우 운전자의 사망확률이 매우 낮아지게 된다. 제한속도 시속 30km의 경우는 차량과 보행자간의 사고발생시 보행자의 사망확률을 낮출 수 있는 차량속도이다. 이러한 제한속도의 적용은 도시 지역의 고소화도로 및 간선급도로의 일부를 제외하고 제한속도를 원칙적으로 시속 50km이하로 나뉘어서 설정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보행자 활동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시속 30km이하로 제한속도를 적용하여 보행자 등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여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8년 기준으

로 3781명이다. 이는 90년대 초반 한해 1만 3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상태지만 아직도 하루에 10.4명 수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수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들(35개국)과 비교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하위권(31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교통안전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교통사고로 인해 잃고 있다는 점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보행사망자가 40%가 넘고 대부분이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속도 5030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제한속도를 낮추게 되면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을 가중해 볼 때,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사망확률을 30% 줄일 수 있고 시속 50km에서 30km로 낮추면 추가적으로 사망확률을 35%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교통안전선진국의 경우 도시지역에 대한 제한속도를 50km이하로 적용하는 정책을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도시지역에서 도로주변의 여건을 반영하여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 20km, 10km 등으로 세분화해서 적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연구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한속도의 하향은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20~30%) 및 사망자수 감소

대전시내버스 파업 가결... 17일 파업 돌입

대전시는 시내버스 노조가 지난 1일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 후 10일 시행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83.7%의 찬성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파업참여가 가능한 버스노조 조합원 1,409명 중 1,26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180명으로 총 조합원 중 83.7%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투표 완료에 따라 노조의 파업 전 사전접차는 마무리됐으며, 노동위원회의 조정 신청안 합의 여부에 따라 파업여부가 결정된다. 조정신청 기한은 오는 16일까지로 조정안이 결렬될 경우 17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1차 노동쟁의 조정회의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실에서 열리며, 1차 조정회의에서 타결되지 않으면 16일 2차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조정회의에는 조정위원 3명과 노사 당사자가 참석하고, 시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참관한다. 시는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11일부터 관계기관 회의, 차량 탑승 및 기종점지 근무자 교육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줄일 예정

이다. 비상수송차량으로 시내버스 411대, 전세버스 200대와 관공버스 34대 등 총 645대의 버스가 운행되며, 이는 평일 대비 67%, 주말 기준 79% 수준이다. 2007년도 파업 당시에는 530대의 버스가 동원된 바 있다. 시는 투입가능한 대체교통수단인 도시철도를 하루 240회에서 290회로 50회 증회하고, 택시부제를 비롯해 4만 3,000여 대의 승용차요일제 및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해제, 공공기관 시차출근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운수종사자가 파업에 동참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돼 보수를 받을 수 없지만,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근로할 경우는 보수를 지급 받게 된다. 대전시 박용곤 버스정책과장은 “노·사간 주요 쟁점사항인 시급인상과 월 근로일수 보장노조 24일, 사측 23일에 대해서는 노사조정에 의거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쟁의 조정회의 시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d-mail@h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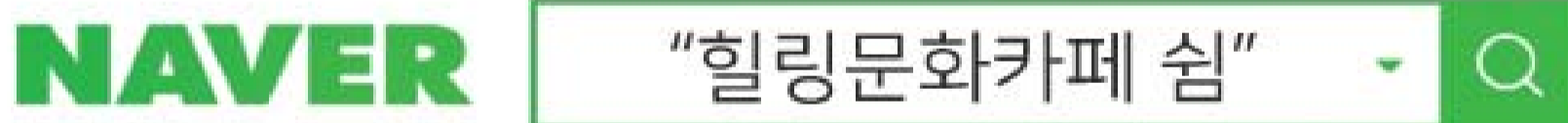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2006년 5월 17일 창간
젊은생각 · 바른신문

발행·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내선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내선 042)538-1602	광고신청내선 042)538-1603	구독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처 : 동양인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전 이색카페 | 상담카페
 당신을 위한 진정한 힐링



성향검사, 적성검사 만나보세요!



예약문의



070.8804.1234



@cafeshuim



대전 중구 중앙로 170번길 28, 3층
은행동 와와돈 3층



월화목금 10:00 ~ 22:00
 일요일 15:00 ~ 22:00
 수요일 : 휴무